『忠淸道邑誌』 해설

忠淸道邑誌 一

一。結城邑誌(奎一七三八七)

읍지의 말미에 있는 「崇禎後三丁丑改修正」이라는 표시로 미루어 보아 一七五七년(영조 三三)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一七五七년은 전국 각 군현에 읍지를 편찬해 올리라는 홍문관의 지침이 하달된 최초의 해이다。이 읍지는 지침이 내려온 그 해에 결성군에서 전해 오던 읍지를 수정해 만든 것이다。

一차 지침에 의해 작성된 읍지들은 전혀 통일된 체제를 이루지 못했다。홍문관에서는 一七六〇년(영조 三六)에 항목과 세부 내용의 기준을 제시한 二차 관문을 전국 각 군현에 내려 보냈다。二차 관문에 의해 수합된 군현 읍지들은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이것이 뒤에 『輿地圖書』라는 이름으로 묶여졌다。이 읍지와 『여지도서』의 결성읍지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규장각본은 建置沿革、郡名、坊曲、城郭、姓氏、形勝、風俗、山川、島嶼、土産、烽燧、戰船、堤堰、館宇、學校、樓亭、倉庫、營庫、驛院、橋梁、場市、佛宇、祠廟、陵墓、古蹟、名宦、人物(東班、生進、西班、出身、忠臣)、題詠、田畓、賦稅、戶口、人吏、官屬、軍官、校生、軍兵、鞾鞿、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일부 항목은 별도의 표시가 없다。그에 비해 『여지도서』본은 정돈된 항목과 간결한 구성이 두드러진다。규장각본에서 자연호로 기록된 인구수는 『여지도서』본에서 편호로 파악되어 있다。전결수의 차이에는 조사

시점 사이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규장각본에 없던 읍지도가 여지도서본에 수록된 것、규장각본에서 상세히 수록된 인물 항목이 여지도서본에서 대폭 축소되었던 점은 一、二차 지침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 준다。이 읍지(규장각본)는 『여지도서』본의 초본과 함께 현지에 남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一九세기에 편찬된 道誌「『忠淸道邑誌』(국립도서관 소장본(한古朝六二-一八八、제四五책)에 수록된 결성읍지」에 이 규장각본(奎一七三八七)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부터 그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二。公山誌(經古 九一五·一三二-Imlg)

一八五九(철종 一〇)년 공주지방의 사족 林挺會 등이 편찬한 사찬읍지。목활자、六권 二책으로 구성되어 있다。一책(권一~권三)의 첫머리에는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으며、二책(권四~권六)의 말미에는 李敬溥、李定在、林準相의 발문이 실려 있다。李敬溥의 발문은 一八五八년에、李定在、林準相의 발문은 一八五九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당연히 一책의 첫머리에 와 있어야 할 金應根의 서문은 二책의 첫머리에 실려 있다。권 一과 권 二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 것、권 三에서 내용상 전혀 이질적인 詩文과 鐫役廳節目이 나란히 수록되어 있는 것 등도 이 읍지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인쇄된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김응근의 서문이 一책의 첫머리에 오는 좀더 정돈된 형태의 필사본은 一八七一년경에 편찬된 道誌(『호서읍지』、제一책、국립도서관 소장본)에 실려 있다。

권四에 실려 있는 許洙의 「읍선생안서문」에 따르면 공주 지방에는 양란 이전부터 선생안이 있었으나 전란으로 인해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한편 김응근은 서문에서 공주지방에 옛 읍지(舊誌)가 있은 지

一〇〇여년이 지났다고 회고했다。선생안을 중심으로 한 공주읍지의 원형은 이미 一六세기부터 있었지만、김응근이 활용한 이른바 舊誌는 一八세기 후반경의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공주목은 지금의 공주시、연기군 일부、대전시 일부를 포괄하는 큰 읍이었으며、육상교통과 수상교통의 요충지였다。이 지도에서는 금강과 그 지류의 흐름、읍치 및 공산성 주변의 시설물과 서원、사찰 등이 강조되고 있다。육상교통시설로는 利仁驛찰방이 주재하던 利仁館(이인면 이인리 이인초등학교)이 그려져 있으나、도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산줄기나 건물의 방향은 대체로 관찰자의 시점을 따르고 있으나 일관되어 있지는 않다。먹색 바탕의 사각형 안으로 각 면의 대강의 위치가 표시되었으며、도면의 주변으로는 인접 군현에 이르는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지도상의 점선은 모두 금강으로 합류되는 지류들의 상류에 해당한다。

금강이 휘감아 돌아 나가는 주변으로 儒倉、東倉、北倉、西倉、南倉 등 창고들이 있고、그 안쪽 자리에 읍치와 산성이 자리하고 있다。지도의 중앙 부분을 흘러 나가는 금강의 지류에 熊津(곰나루)이 보인다。읍치의 주요 시설물들은 이 지류 양편에 위치하고 있다。봉황산 자락으로 향교、사직단、祠堂、宣化堂、觀風樓、布政司 등이 보인다。大通橋를 건너 동쪽으로는 三門、客舍、東軒、本官과 大同廳、被香廳 등이 그려져 있다。지도상에 표시된 성곽은 公山城이다。성 안으로 軍餉庫、中營、司倉 등의 군사시설、後樂亭、雙樹亭、挽阿樓 등의 누정、望月寺、靈隱寺 등 사찰이 표시되어 있다。

忠賢書院(一五八一년、선조 一四년 건립)、道山書院(一六九三년、숙종 一九년 건립)、滄江書院(一六二九년、인조 七년 설립) 등 지도상에 표시된 서원은 모두 一八七一년 대원군의 명에 따라 철폐되었다。그 밖에 사찰로는 東學寺、岬寺、西穴寺、甁谷寺、靈泉寺 등이 표시되어 있다。공산성의 공북루 밖 금강 위(지도의 우측 하단)로 나룻배를 탄 사람의 모습이 이채롭다。

권 一은 疆域、沿革、城池、部坊、坊里、道路、郡名、姓氏、風俗、形勝、山川、土産、烽燧、驛院、橋梁、堤堰、進貢、糶糴、田稅、古蹟、學校(鄕校、祭器、書冊、汁物、器皿)、書院、不祧廟、壇廟、陵寢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공과 주공이 땅의 경계를 바르게 했던 고사를 따라 疆域 항목을 맨 앞에 두었다 한다。疆域 항목에는 인접한 八방위 군현들 사이의 거리가、방리 항목에는 각 면별 리의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각각 기록되어 있으며、파악된 호수는 편호로 총 一六、三四九戶였다。

도로、역원、교량 항목은 주요 교통시설의 현황을 보여준다。지도상에 그려지지 않았던 도로는 본문에서 東西南北路로 구분되어 인접군현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었다。역원 항목에는 日新驛、廣程驛、敬天驛、丹坪驛、維鳩驛、利仁驛 등 六곳의 위치、말과 노비의 숫자 등이 파악되어 있다。교량으로는 대통교 이외에도 겨울에 세웠다가 봄에 철거하는 흙다리(錦江圯橋)가 있었다 한다。이밖에 제언 항목에는 위치、둘레、깊이가 표시된 一五개 제언이 수록되어 있다。

진공、조적、전세 등 재정 관계 항목은 그다지 상세하지 않은 편이다。조적 항목에는 軍資倉、常賑廳、均役廳、備邊司、營賑倉穀의 종류와 명세가 실려 있는데、특히 군자창의 경우 가축(猪、羊)을 수급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전세 항목은 上納、大同上納、均稅、俸廩으로 구분되어 있다。이 가운데 상납미곡은 一월에 받아들여 二월에 배에 싣고 서울로 향하는데、恩津의 江景浦에서 출발하여 서울 龍山倉에 닿는 항해의 경로가 표시되어 있다。

고적 항목에는 廢縣、部曲、所、廢山城 등과 함께 三賢臺、白雲寺가 소개되었는데、삼현대는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의 일화가 어린 곳이라 하며、백운사는 成夢井의 齋室이 있었던 자리라 한다。

권 一에서 가장 자세한 것은 향교와 서원 항목이다。향교와 관련해서는 공산향교를 옮겨 짓게 된 경위、大成殿、東廡、西廡의 칸수와 배향 인물 뿐만 아니라 祭器庫、齋室、明倫堂、講學樓、社稷壇 등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설명도 보인다。正位、配位、東西從享一六위、東西廡一六위 등 위계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제기의 명목 등이 구별되었다。서책으로는 朱子大典을 비롯한 강학용 서적 뿐만 아니라、民役廳節目、新舊屯案、新舊奴婢案、保奴案 등 향교의 경제와 관련된 문건들도 보인다。이밖에 향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그 비용(汁物)、그릇의 종류와 수량(器皿)과 함께 齋任이 파악되어 있다。

서원 항목에서는 忠賢書院、滄江書院、道山書社、蓼塘書社、遯坡書社、岐湖書社、雲山書社、盛峰書社、錦湖書社、忠節祠、招魂閣의 위치와 제향인물들이 소개되었다。특히 충현서원의 경우 전란으로 불탄 주자의 초상을 다시 모사해 걸게 된 경위、조정에서 사액을 받게 된 경위、김장생 송준길 등 여러 인물들을 제향하게 된 사유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권 二는 興學、名碩墓所、寺刹、公廨、鎭堡、田結、司馬所、鄕射堂、場市、津船、倉司、樓亭、院、名宦、事蹟、忠賢院事蹟으로 구성되어 있다。흥학 항목에는 충청감사、공주목사、판관 등을 역임했던 사람 가운데 학교 시설물을 고쳐 지었거나 그 재정기반을 확보한 사람들의 명단과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특히 趙憲의 공로가 강조되고 있다。尹元擧、李貴、姜栢年、權諰、權以鎭、吳道一 등 관내에 소재한 명사들의 무덤자리에 대한 설명은 名碩墓所 항목에 있다。

公廨항목과 鎭堡 항목에는 읍치와 토포영、利仁驛 등의 시설물들 뿐만 아니라 각각에 딸린 吏屬 등 하급 인원들과 그 숫자가 열거되어 있다。사마소와 유향소 항목의 기재 원칙도 동일하다。

공주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말해주는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전결항목에는 장부상의 원전답만이 기재되었으며(수전:五、一七七결 六一부 二속、한전:五、四七四결 一〇부 二속)、一五곳에 달하는 장시는 그 위치와 장이 서는 날짜가 표시되었다。나루터를 표시한 진선 항목과 관내 주요 창고를 기록한 창사 항목、육상교통시설을 기록한 院 항목도 자세하지 못하다。

『동국여지승람』으로부터 요약 발췌해서 실었다는 樓亭 항목의 뒤로, 이 읍지 편찬자의 시각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事蹟 항목이 있다。사적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유재란 관련 사적、이괄의 난 관련 사적이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명의 신종은 다시 조선에 원병을 보냈다。이듬해인 一五九八년(선조 三一) 명의 제독 李𤦲가 위관 林濟 등과 함께 공주를 경유하였고、유격 南芳威는 공주에 주둔하게 되었다。이때 이기 등이 전란 후 공주를 안정시키자、지역 인사들이 금강 남쪽에 비석을 세워 그들의 공을 기렸다 한다。이기와 임제의 비석은 一五九八년 三월 공주목사 여유길 등에 의해 세워졌으며、곧이어 임방위의 비석이 세워졌다。

세월이 지나면서 비문이 떨어져 나가는 등 훼손상태가 심각해지자、一七一四년(숙종 四〇) 관찰사 宋正明 등이 지역 사족들과 협의하여 세 사람의 비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한다。송정명은 새로 만든 비석을 望日思恩碑라 칭했다。이른바 明의 「再造之恩」에 대해 국가에서 대보단을 만들어 제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처음 이기의 비석을 만들게 된 경위를 적은 李栻의 글、비석들을 다시 만들게 된 것이 大義를 잊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宋正明의 글과 李景說의 記、남방위의 비석을 처음 조성한 경위를 적은 鄭霽의 글이 있다。

李景說은 특히 비석과 관련된 일화들도 빼놓지 않고 소개했다。금강이 범람하면서 최초의 비석이 강물과 토사에 잠기게 되었는데、邑吏가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비석을 바로 세웠다는 것이다。송정명이 비석을 다시 만들 때 원래의 비에서 떨어져 나간 두 군데의 다섯 글자를 채우게 된 경위는 野史를 방불케 한다。사족 李廈禎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鄭霽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힌 노인이 두 군데의 다섯 글자를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李景說에 따르면、비석 재건에 대해 들은 바 없고 더구나 원래의 비문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 리 없는 이하정이 문맥에 딱 들어맞는 다섯 글자를 알려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주가 다시 국가적인 대사에 관련된 것은 一六二四년(인조 二) 이괄의 난이 일어나면서였다. 반란을 주도한 이괄의 군대가 평안도를 휩쓸고 경기도 벽제를 거쳐 한양에 이르자, 인조가 공주로 피난을 내려온 것이다. 인조가 공산성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잠시 머무르거나 경유했던 곳이 石松亭, 牛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경위, 인조가 공산성 雙樹亭에서 수비대책을 논의하다가 난이 진압된 사실을 보고받고 관계자를 시상한 경위, 一七〇八년(숙종 三四) 세운 公州山城雙樹記績碑의 내용과 申欽, 宋時烈 등의 글이 실려 있다.

忠賢院事蹟 항목에는 충현서원에 대한 李廷龜의 글이 실려 있다. 충현서원이 자리잡은 계룡산의 산세, 지역에서 배출된 인물, 서원이 설립된 경위, 왜란 후 재건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권 三 : 記, 十景, 蠲役(節目), 民役(節目)

記에서는 鄭以吾와 徐居正의 聚遠樓記, 南秀文의 獨樂亭記, 李縡의 運山書塾記, 宋時烈의 拱北樓重修記, 洪檍의 雙樹亭重修記가 보인다. 十景 항목에는 금강에서의 봄놀이, 월성의 밤풍경, 곰나루의 밝은 달, 계룡산의 구름 등 공주의 빼어난 경치와 그곳에서의 감흥을 노래한 서거정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一九세기 초 공주의 민폐와 관련된 두 개의 절목이 별다른 구분 없이 이어지고 있다. 「正宗朝辛酉三月日本州蠲役廳追節目」과 「正宗朝辛酉八月日本州民役廳節目」이 그것이다. 공주지역에서는 매 식년마다 특별한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호적 조사용 종이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견역청이다. 一七八二년(정조 六)에 尹光顔의 주도로 五〇〇냥의 기금이 마련되었고, 그 이식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 기금 관리가 허술해지고 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면서 견역청이 폐지되고 부담은 다시 민간에 돌아가고 말았다. 폐지된 견역

청은 一八〇一년(순조 一)에 재차 설립되었다。견역청을 다시 두는 데 필요한 원금 五〇〇냥은 유용된 재원을 조사해 환수한 액수와 영문에서 보조한 액수를 합쳐 조성되었다。같은 해 三월에 작성된 公州蠲役廳追節目은 새 견역청의 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밝혀놓은 지침으로、모두 八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같은 해(一八〇一년) 八월에 公州民役廳節目이 마련된 것은 견역청의 운영을 견실하게 하기 위해 불가결한 조치였다。공주민역청은 민역 부담에 응하기 위해 一七一六년(숙종 四二)에 설립되었다。민역청에서는 처음 호당 조 二두를 거두어 재원으로 활용했으나 一七三七년(영조 一三)년부터 여러 잡역 부담이 추가되면서 부족한 재원을 다시 민간에서 거둘 수밖에 없었다 한다。민간에 징수하는 액수는 처음에는 三년에 한차례、혹은 매 호당 五分에 불과했지만、점차 늘어나 매년 매 호당 一錢五分을 거두는 지경에 이르렀다。징세액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사족들은 호역을 부끄럽게 여겼다。그 결과 호적대장에서 빠져나간 호구는 늘어난 반면 징세는 더욱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급기야 모자라는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견역청의 재원을 돌려다 사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그 결과는 견역청과 민역청 모두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결국 민역청의 정상화는 견역청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다。문제 해결의 열쇠는 매 호당 부과되는 과중한 부담이었다。공주부에서는 자구 노력과 함께 해결책을 연구하여 중앙 정부에 청원했다。결국 공주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그것은 호전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민역청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다。公州民役廳節目은 민역청 재원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를 二〇여개조에 걸쳐 밝혀놓은 지침이다。公州蠲役廳追節目과 公州民役廳節目에 기록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된 해설(서울대학교 규장각 편、一九九六、『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史部三、二〇三~二〇六쪽에 실린 윤경진의 글)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권 四 : 營門先生案、都事先生案、本府先生案

營門先生案은 역대 觀察使의 명단인데、아래 쪽에는 都事先生案을 같이 기록했다。관찰사는 조선초기부터 읍지 편찬 당대의 관찰사인 金應根까지 수록되어 있으며、관찰사의 직함 위에 겸직여부、행수제 적용 여부 등이 아울러 기록되어 있다。本府先生案에는 조선초기부터 읍지 편찬 당시의 韓應弼에 이르는 牧使、判官、府使、縣監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권 五 : 舊誌、新增、淸白、忠勳、蔭仕、武職、薦榜、贈者 / 권 六 : 孝子、節孝女、烈女、題詠

舊誌人物秩은 옛 공산지에 수록된 인물들과 그 행적을 옮겨적은 것인데、충신 중 우정이란 인물이 『英廟丁丑에 崇奬되었다』는 표현은 이른바 구지의 상한연대가 정조 때임을 알려준다。구지가 인물과 충신으로 단순 분류되어 있었던 데 비해、이 읍지는 文科、淸白、忠勳、蔭仕、武職、薦榜、贈者 등으로 훨씬 상세히 분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권 六은 효자、절효녀、열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舊誌와 新誌 사이의 세부분류는 큰 차이가 없다。二책의 말미에는 읍지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실려 있다。

三。槐山郡邑誌

一) 槐山郡邑誌(奎一七三九二)

편년 미상의 괴산군읍지。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坊里、山川、風俗、田賦、田稅、大同、徭役、軍額、倉庫、學校、壇廟、名墓、寺刹、樓亭、道路、橋梁、場市、驛院、牧場、古蹟、土産、進貢、俸廩、宦蹟、科甲、人物、題詠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여지도서』와는 다른 유형의 읍지이다。전체적으

로는 소략하지만、군현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원호(三、三三七호)와 남녀구수(남: 九、六七〇구、여: 六、一三八구)는 辛酉年의 호구 통계로부터 인용되어 있다。田賦、田稅、大同、徭役、軍額、倉庫 등의 항목에는 간지가 없다。다만 一八〇二년까지 존속한 壯勇營이 창고 항목에서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보면、호구 통계의 기준년은 一八〇一년(순조 一)이 된다。따라서 나머지 사회경제적 지표들도 一八〇一년 전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인물 항목의 열녀 이씨에 대한 설명에서 『新續三綱』이 인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여기에서 三綱이라는 책자는 尹鑑烈이 一八二六년(순조 二六)에 편찬한 槐山郡三綱錄(奎四二七一)、혹은 그 수정판을 가리킨다。이것은 이 읍지가 필사된 시점이 一八二六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음을 의미한다。

二) 槐山郡邑誌(想白 古 九一五 · 一三一G五五三)

一九〇二년(광무 六)에 편찬된 괴산읍지。첫머리에 읍지도가 들어 있다。

읍지도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이중 축척、관찰자의 시점을 따라 가는 開花式 산줄기 표현 등 조선시대 군현지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속리산에서 백두대간으로부터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은 충청도 회인、청주를 돌아 괴산에 닿는다。지도의 위쪽 백마산과 보광산은 한남금북정맥이 괴산을 향해 들어오는 맥이다。

고리현、도솔산、아리현 등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읍치 주변에서 합류되어서 읍치를 관통한 후、읍치 외곽지점에서 굴현、송현、사현 등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합류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이 물줄기는 槐江에 합류되어 利灘을 거쳐 충주의 薩川으로 흘러들어 갔다가 남한강에 합류되는데、이 지도는 원본을 베껴 그리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우측 상단에는 괴산군의 간략한 연혁이 실려 있다。장방형 안에 적혀 있는 각 면은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채색된 원형 표시는 대원군 때 사창제 시행에 따라 설립된 사창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지도상 읍치는 일도면、이도면 일대에 걸쳐 있는데、대부분의 조선시대의 읍터가 그렇듯、객사 자리에는 현재 읍사무소、동헌 자리에는 경찰서 등이 위치하고 있다。그밖에 읍치의 주요 시설물로 향교、문루、군기고、사령청、작청、훈련청、향청、군관청 등이、그 주변으로 사직단、여단、성황단 등이 표시되어 있다。그 밖에 선조 때 柳根이 지은 孤山亭、유근의 별장이었던 霽月臺 등이 보인다。괴강이라는 표시 인근의 도로변에 槐灘店이라는 점막이 표시되어 있다。또 읍치 안쪽으로 장터가 있고、西面에도 居沙場이라는 장터가 보인다。이황 등을 배향했던 花巖書院(괴산군 칠성면 송동리)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一八七一년)으로 없어진 상태여서 지도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문 내용은 建置沿革、郡名、坊里、結戶都摠、道路、橋梁、形勝、城池、姓氏、風俗、公廨、堤堰、陵寢、壇廟、牧場、驛院、倉庫、新設社倉糶糴、進貢、俸廩、土産、人物、鎭堡、古蹟、校院、寺刹、樓亭、烽燧、關阨、軍額、題詠으로 구성되어 있다。結戶都摠、驛院、新設社倉糶糴、俸廩、校院 등의 항목에는 편찬 시점과 가까운 시기의 사정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만、전체적으로는 매우 소략하다。

三) 忠淸北道槐山郡邑誌(奎一〇七五五)

一八九九년(광무 二)에 편찬된 괴산군읍지。첨부된 읍지도는 槐山郡邑誌(想白 古 九一五·一三-G五五三)의 읍지도와 거의 동일하지만、좀더 정돈된 필치로 그려져 있으며 산줄기 표시가 풍수적인 느낌을 많이 준다。읍치 주변으로 읍성 표시가 없는 점、西面에 점막이 표시된 반면 장터 표시가 없는 점、괴산 내외곽을 흐르는 물줄기가 충주의 달천으로 유입된다는 사실이 적혀 있는 점 정도가 다르다。

본문은 建置沿革、郡名、鎭管、官員、坊曲、風俗、山川、土産、學校、祠廟、館庫、驛院、堤堰、佛宇、古跡、邑先生、穀摠、結摠、戶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대부분 소략한 편이며、곡총(五八六석 一二두 一승 六합 九석 二리)、결총(一、三八五결 四三부 八속)、호총(二、六〇九호)에도 세부적인 설명은 없다。읍선생 항목에는 金義淳에서 閔泳琬에 이르는 一九세기 괴산군수의 명단 아래로 文蔭武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一。丹陽郡邑誌

一）丹陽郡邑誌(奎一〇七四五)

一九세기 후반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간략한 단양읍지。표지에는 忠淸北道丹陽郡邑誌라고 쓰여 있다。첫머리에 채색지도가 실려 있다。

현재의 단양군은 조선시대의 단양과 영춘이 합쳐진 곳으로、지도상에 표시된 곳은 단양읍、매포읍、적성면、단성면、대강면 등 현재 단양군의 남쪽에 해당한다。읍치가 표시된 지역은 현재의 단양읍 하방리 일대로、지도상에도 下坊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는 국토의 등뼈를 이루며 삼척의 태백산、보은의 속리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진다。태백산을 지나온 산줄기는 원교산、죽령、도솔산을 거쳐 속리산을 향해 뻗어간다。단양은 죽령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 끝에 위치해 있다。죽령은 충청도와 경상도와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 중 하나로、지도의 우측 상단에도 죽령 너머 경상도 순흥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다。

사방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줄기는 읍내를 관통하는 남한강에 합류된다。정선、영월、영춘을 거쳐 흘러내린 남한강 물줄기는 단양을 지나 청풍(지도의 좌측 하단)、여주 방면으로 향한다。강변을 따라 舍人巖、上仙巖、中仙巖、下仙巖、降仙臺、龜潭峰、玉筍峰 등 뛰어난 경치로 이름난 곳들이 표시되어 있다。二樂樓、蒼霞亭 등의 누정과 丹巖書院(적성면 현곡리)은 그 위치와 함께 지도 편찬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아울러 기록되어 있다。一六六二년(현종 三)에 창건되어 禹卓과 李滉의 위패를 모셨던

단암서원은 一八六八년(고종 五) 대원군의 명에 따라 철폐되었다。우탁은 본관이 단양이며、이황은 단양군수를 역임한 인연으로 이 서원에 배향되었다。

지도의 뒷편으로 建置沿革、境界、官員、姓氏、山川、道里、坊里、戶口、田結、穀摠、關防、烽臺、學校、壇廟、陵墓、倉庫、公廨、場市 순으로 간략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호구(一、七二七호)、전결、곡총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알려주는 지표들은 모두 장부상에 기재된 수치만이 전재되어 있을 뿐이다。一八七一년에 편찬된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 안의 丹陽邑誌와 유사하지만、훨씬 소략하다。

二) 『(丹陽)邑誌』(奎一〇七六三)

一八九九년에 편찬된 『(忠淸北道各郡)邑誌』에 실려 있는 단양읍지。첫머리에 채색지도가 있는데、지도의 내용은 위 丹陽郡邑誌(奎一〇七四五)의 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본문은 建置沿革、境界、官員、姓氏、山川、道里、坊里、戶口、田結、軍額、穀摠、關防、烽臺、學校、壇廟、陵墓 등으로 구성된 전반부와 읍사례가 적힌 후반부로 구별된다。전반부의 항목과 내용은 위 丹陽郡邑誌(奎一〇七四五)에 실린 것과 유사하지만、호구、전결、곡총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의 내용이 다르다。전결의 세부 명목이 구분되어 있으며、군액은 京案付와 外案付 별로 정리되어 있다。특히 곡총 항목에는 一八八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의거하여 사환미를 분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서 一九세기 말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후미의 읍사례는 그다지 상세한 편은 아니지만、一九세기 말 단양부의 재정 사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二。大興郡邑誌(奎一七三八九)

숙종대 후반의 사정이 반영된 대흥읍지。『동국여지승람』의 항목과 내용에 일부 내용이 추가된 경우(新增)와、『동국여지승람』에는 없는 새로운 항목과 내용들이 새로 추가된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전체 항목은 位置、建置沿革、郡名、官員、姓氏、形勝、風俗、山川、土産、城郭、學校、祠廟、塚墓、古蹟、堤堰、館宇、佛宇、人物、孝子、烈女、文科、武科、蔭仕、橋梁、樓亭、官案、戶額、田案、財穀、貢案、賦案、吏案、兵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 堤堰、館宇、文科、武科、蔭仕、戶額、田案、財穀、貢案、賦案、吏案、兵案 등은『동국여지승람』에는 없는 항목들이다。이런 편찬 방식은 一七세기에 활발히 진행된 사찬읍지 편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전체적으로는 효자、열녀、문과、무과、음사、누정 등이 상세한 편이다。

대흥이 현에서 군으로 승격된 해인 一六八一년(숙종 七)을「今上辛酉年」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一七一五년(숙종 四一)까지 생존한 洪萬選이 官案의 말미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점 등은 이 읍지가 一七세기 말、혹은 一八세기 초에 편찬되었거나、혹은 그것을 베껴 적은 것임을 말해 준다。충청도에서 편찬된 一七세기 사찬읍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이 읍지는 매우 중요한 사료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三。木川邑誌

一) 木川縣邑誌(奎一七三八二)

안정복이 一七七九년(정조 三)에 편찬한『大麓志』의 내용을 간추린 목천읍지。『대록지』라는 이름의 사

찬 목천읍지가 처음 편찬된 것은 一七세기였다。이 읍지의 풍속항목에서 인용된『舊邑誌』가 그것이다。그러나 一권으로 된 一七세기의 목천읍지는 너무나 소략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한다。목천군수로 있던 안정복은『동국여지승람』의 체제를 바탕으로 많은 내용을 증보하여 새로운『대록지』를 편찬했다。木川縣邑誌(奎一七三八二)는 안정복의『대록지』를 발췌하고 항목의 이름과 배열 순서를 바꾸어 편집한 것이다。명종 때부터의 목천군수를 기록한 仕官 항목이 一七七六년(정조 즉위년)에 부임한 안정복에서 그치고 있는 것은 이 읍지와 안정복의『대록지』와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읍지의 마지막 쪽에는『大麓志』下、補遺라는 표제 아래 간략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편자가 일단 一권 체제로 필사를 완료한 후 상하권 체제를 의식하면서 보완해 넣은 듯하다。

본문은 建置沿革、官員、疆域、面里、風俗、形勝、山川、土産、進貢、樓亭、公廨、田結、倉穀、賦稅、軍器、戶口、軍額、校院、壇廟、堤堰、驛院(附酒店)、橋梁、墟市、佛宇、任官(附寓居)、孝子、孝女、姓氏、人物、烈女、忠義、科宦、蔭仕、武職、冢墓、古跡、雜事、題詠、補遺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역항목에서는 四방위의 대중소로가 구분되어 있다。면별 리와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표시된 면리 항목에는「조선에 面이 있는 것은 중국에 鄕이 있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公廨 항목에는 정조대 초에 개보수된 건물들과 그 내역이 상세히 파악되어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 읍지가 단순히 군현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개하는 데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전결 항목에서는 一六三四년(인조 一二)、一六六九년(현종 一〇)、一七一九년(숙종 四五) 때의 양전 사실과 전결수、一七六九년(영조 四五)의 전결수、一七七八년(정조 二)의 장부상 전결수와 당시의 총 경작면적、각 면별 경작면적 등이 상세히 파악되어 있다。비교된 전결수는 양전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별로 수치가 파악된 호구 항목에서도 一七六八년(영조 四四)과 一七七七년(정조 一)의 통계가 비교되고 있

다。기타 창곡、부세(一七七八년、정조 二)、군액(一七七七년、정조 一)、역원의 위전답 액수(一七七八년、정조 二)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들도 대부분 안정복의 『대록지』가 편찬되던 一七七九년(정조 三)과 가까운 시점의 통계들이 사용되었다。근동면의 별칭인 葛田의 명칭(칠앗)、역원 중 井項院의 명칭(우물목고기) 등에서 한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채롭다。

二) 木川邑誌(奎三二五九)

一八一七년(순조 一七)에 趙國仁이 安鼎福의 『大麓志』를 수정 증보하여 간행한 목천읍지。상하 二권 二책의 목활자본이다。표제는 『大麓志』이나 내제는 『木川縣誌』이다。一책의 첫머리에는 조국인의 서문、안정복의 서문(一七七九년、정조 三)이 있고 그 뒤로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조국인의 서문 말미에는 이 읍지 간행에 참여한 지역 사족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다。안정복은 불충분한 문헌 때문에 자신이 편찬한 『대록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없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뒷날의 인재가 후속 작업을 해 주기를 희망했다。조국인의 이 읍지는 안정복이 바라던 그 후속작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읍지도가 소략한 느낌을 주는 것은 책판의 크기에 맞추어야 하는 크기상의 제약에다 목판본이라는 형식상의 제약이 중첩되었기 때문이다。산줄기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본문은 안정복의 『대록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조국인에 의해 보완된 내용이 속、증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형태상 조선시대 법전과 흡사한 느낌을 준다。木川縣邑誌(奎一七三八二)가 안정복의 『대록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안정복의 『대록지』는 위 목천현읍지보다는 木川邑誌(奎三二五九)에서 속、증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한다。

안정복의 『대록지』 원문을 보충한 것에는 「續」을、원문에 없던 별도의 내용이 추가된 것에는 「增」

을 각각 사용했다。사회경제적 지표와 관련된「續」과「增」에는 一八一七년(순조 一七)과 가까운 시점의 사정들이 반영되어 있다。

상권은 郡名、建置沿革、官員、疆域(附道里)、面里、風俗、形勝、山川、土産、進貢、樓亭、公廨、校院(附鄕塾)、壇廟、田結、倉穀、賦稅、徭役、廩俸、軍器、戶口、軍額、堤堰、驛院、橋梁、墟市、佛宇、古跡、古事、題咏으로 구성되어 있다。

木川縣邑誌(奎一七三八二)와 일치하는 항목의 원문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四방위의 대중소로가 구분되어 있는 강역 항목、면별로 각 리와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표시된 면리 항목、정조대 초에 개보수된 건물들과 그 내역이 실려 있는 공해 항목、조선후기의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비교 분석된 전결、창고、부세、호구、군액 항목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원문이라도 내용이 상대적으로 자세한 곳들도 적지 않다。또 속、증에 의해 추가된 내용 뿐만 아니라 徭役 항목과 같이 木川縣邑誌(奎一七三八二)에는 없던 항목들도 있다。요역 항목에는 雜役、氷政、烟戶役、刷馬錢을 마련하는 절차와 함께 防役所節目이 실려 있다。一七七七년(정조 一)에 만들어진 이 절목은 수령을 환송하고 영접하는데 쓰이는 夫馬價 관련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읍지는 편찬자와 편찬 시점이 분명하다는 점、一八세기 후반에서 一九세기 초반에 이르는 동안 지방 군현의 실상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그러나 이 읍지가 높은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원본에 해당하는 안정복의『대록지』가 이미 정돈된 편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속、증 등에 의해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관원 항목에서는 一八一六년(순조 一六) 당시의 관원 현황이 파악되어 있고、풍속 항목에서는 이 고을이 儒鄕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누정 항목에서는 황윤석、李世烈 등의 시가 있으며、공해 항목에서는 안정복의『대록지』이후에 개보수된 건물과 그 내역이

실려 있다。교원 항목 가운데에는 향교 란에서 김인후가 향교에 배향된 사실、정조 때 반포된 『鄕禮合編』、『朱書百選』、『雅誦』、『奎章全韻』 등의 책자가 소장된 사실、道東書院 란에서 一八一二년(순조 一二) 興敎祠가 건립된 일、향숙 란에는 英會堂이 건립된 사실 등이 눈에 띈다。

군현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전결、창곡、호구 등의 항목에도 一八一六년(순조 一六)의 통계가 추가되어 있으나、賦稅、廩俸、軍器、軍額、堤堰、驛院、橋梁、墟市 항목 등에서는 순조대 초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墟市 항목에는 「조선의 풍속에는 墟市를 場이라 한다」는 세주가 붙어 있다。李得夏의 記(佛宇)、朝陽亭터에 관한 기록(古跡)、金馹孫의 일화(古事)、柳活의 시(題咏)가 각각 추가되어 있다。

제 二책인 卷下는 인명록에 해당하는데、邑先生案、姓氏、人物、儒行、文藝、孝子、烈女、忠義、科宦(文科、司馬、蔭仕、武職、壽職)、塚墓로 구성되어 있다。一五五八년(명종 一三)부터 시작된 읍선생안은 一八一三년(순조 一三)에 부임한 趙國仁까지 기록되어 있다。명단 가운데 안정복까지는 『대록지』를 편찬한 안정복 자신의 기록이고、增 표시 아래 柳漢奎부터 趙國仁까지가 조국인에 의해 보충된 부분이다。성씨 항목에는 각 면별로 각 성씨와 그들이 거주하게 된 연혁、기록할 만한 인물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고려시대 이래 목천현에서 배출된 인물들은 人物、儒行、文藝、孝子、烈女、忠義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수록되었는데、특히 金日孫、鄭逑、金萬重(儒行)、金得臣(文藝) 등 저명한 유신들의 이름도 보인다。그 뒤로 목천현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했거나 벼슬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文科、司馬、蔭仕、武職、壽職 등의 항목에 나뉘어 실려 있다。말미의 塚墓 항목에는 金日孫墓 등 목천현 내의 주요 무덤들이 파악되어 있다。

안정복이 『대록지』를 편찬한 一七七九년(정조 三)에 興德 출신의 실학자 黃胤錫이 목천현감으로 있었

다。황윤석은 마침 목천현 鄕廳에 보관되어 있던 안정복의 『대록지』를 보게 되었다 한다。황윤석은 『대록지』가 지닌 상세함에 놀라면서도 상대적으로 남인 가문 인사들의 행적이 높게 평가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頤齋亂藁』、권三一、一八일 戊辰)。황윤석의 『대록지』에 대한 평가는 읍지와 사족의 관계、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읍지에 대한 인식 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四。文義邑誌(奎一七三八〇)

『輿地圖書』에 실린 문의읍지를 베껴 쓴 읍지。읍지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일부 항목의 순서가 뒤바뀐 점을 제외하고는 『여지도서』의 문의읍지와 동일하다。군병 항목의 말미 부분에 일부 탈자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여지도서』의 문의읍지를 베껴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항목은 鎭管、建置沿革、郡名、形勝、官職、山川、坊里、道路、姓氏、風俗、壇廟、公廨、堤堰、倉庫、物産、驛院、烽燧、寺刹、古跡、人物、旱田、水田、進貢、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軍兵으로 구성되어 있다。방리항목의 編戶 수와 인구수、旱田、水田 항목의 시기전결수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은 모두 一七五九년(영조 三五)의 통계가 반영되어 있다。

五。報恩邑誌

一) 報恩郡邑誌(奎一七三七九)

一七八八년(정조 一二)경에 만들어진 원본을 一八一〇년(순조 一〇) 이후에 베껴 적은 보은읍지。항목

은 鎭管、坊里、道路、建置沿革、郡名、官職、山川、姓氏、風俗、壇廟、公廨、堤堰、倉庫、物産、驛院、牧場、寺刹、古跡、城池、人物、旱田、水田、進貢、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軍兵、樓亭、橋梁、冊板、形勝、烽燧、鎭堡、陵寢、關隘로 구성되어 있다。읍지도가 없는 점、樓亭、橋梁、形勝、烽燧 항목 등이 말미에 있는 점、城池、鎭堡、陵寢、關隘 항목 등이 추가되어 있는 점 등을 제외한다면 형태상 『여지도서』의 보은읍지와 동일하다。각 리별로 편호 수、남녀 호구수가 파악된 호구 항목은 丙午年의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陵寢、關隘과 같이 아무 내용이 없는 항목이 말미에 추가된 점은 이 읍지가 단순한 사찬읍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형식요건이 구비되어야만 하는 관찬읍지였음을 말해 준다。또 항목의 편차가 일정치 않은 점、한전、수전 항목에서 시기전답수가 파악되어 있지 않은 점、田稅 大同 항목의 내용이 채워지지 못한 점 등은 이 읍지가 다급하게 만들어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人物 항목에서 『여지도서』의 일부 내용이 생략된 반면 영조 때 인물이 새로 추가되었다。표제와 내제가 보은군인데 비해 본문의 관직 항목에는 현감으로 되어 있는데、이는 보은이 縣이었을 때 만들어진 원본을 郡이었을 때 베껴 쓰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이다。보은이 현에서 군으로 승격된 것은 一八一〇년(순조 一〇)이다。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면 이 읍지의 원본이 정조대 이후 一八一〇년(순조 一〇) 이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조대 이후 一八一〇년(순조 一〇) 이전까지 시도된 전국 규모의 관찬읍지 제작 시도는 정조의 『해동여지통재』(혹은 『해동읍지』)가 유일하다。규장각에서는 정조의 뜻에 따라 一七八八년(정조 一二) 전국 각 군현에 읍지를 편찬해 올리라는 관문을 내려보냈다。결국 이 읍지는 보은군이 규장각의 관문을 받고 급하게 제작한 초고본을 一八一〇년(순조 一〇) 이후에 베껴 적은 읍지일 가능성이 높다。이런 추정 위에서 보면 호구의 기준 연도인 병오년은 一七八六년(정조 一〇、丙午年)이 된다。一九세기 중반경에 편

찬된 『충청도읍지』(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古朝六二-一八八) 제 一七책의 보은읍지는 읍지도가 실려 있고, 관직이 군수로 바뀐 점을 제외하고는 이 읍지와 동일하다.

二) 報恩郡邑誌(상백 古 九一五·一三-B六三三)

헌종대 이후에 작성된 보은읍지. 一八一〇년(순조 一〇)에 순조의 태실을 속리산에 봉안해 온 후에 군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부터 제작 시점의 상한선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첫머리에 읍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책의 크기에 맞추어 개화식으로 그려진 이 지도는 산줄기, 물줄기, 도로, 면이름, 읍치의 위치, 산성 등을 표시한 소략한 형태이다.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달려온 백두대간은 삼척의 태백산에서 방향을 틀어 죽령을 지나 보은을 감싸고 있는 속리산에 이른다. 지도의 우측 상단에 보이는 속리산에서 오른쪽으로 경상도 상주쪽과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가 백두대간이다. 속리산 자락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는 남서쪽으로 흘러 금강이 된다.

읍지도 뒤로 鎭管,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官職, 山川, 壇廟, 公廨, 堤堰, 軍丁, 時起田畓, 田稅, 大同, 糶糴, 社倉, 物産, 驛院, 寺刹, (古跡), 城池, 人物, 孝子, 烈女, 進貢, 俸廩, 淸州鎭管所編伍軍 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방리 항목에는 인구 통계가 없으며, 각 면 이름 위에는 八방위가 표시된 곳이 다수이다. 군정의 숫자는 경안부와 영안부만이 구분되어 있으며, 경작되고 있는 토지는 총 면적(二, 一〇一결 一六부 一속)만이 쓰여 있을 뿐 전답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전세와 대동 항목은 정묘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읍지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一八一〇년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면 위의 정묘년은 一八六七년(고종四)이 되는데, 분명치 않다.

三) 報恩郡志(상백 古 九一五·一三-B六三三g)

一八七一년 이후에 작성된 보은읍지。위 報恩郡邑誌(상백 古 九一五·一三-B六三三)와 마찬가지로 一八一〇년(순조 一〇)에 순조의 태실을 속리산에 봉안해 온 후에 군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읍지도는 없으며、항목은 鎭管、坊里、道路、建置沿革、郡名、官職、山川、壇廟、公廨、堤堰、軍政、田稅、大同、糶糴、倉庫、社倉、物産、驛院、牧場、寺刹、古跡、城池、人物、孝子、烈女、進貢、俸廩、淸州鎭管所編伍軍、樓亭、橋梁、形勝、時起田畓、戶摠으로 구성되어 있다。읍지도가 없는 점、전결 숫자、관직 항목의 아전 숫자 등이 조금 다른 점、牧場、樓亭、橋梁、形勝、戶摠 등이 추가된 점을 제외한다면、위 報恩郡邑誌(상백 古 九一五·一三-B六三三)와 유사하다。

一八七一년에 제작된『호서읍지』(奎一二一七六) 제 八책의 보은읍지는 이 읍지와 더욱 유사하다。일부 항목의 배열 순서가 다른 점、戶摠이 기재되지 않은 점、읍지도가 붙어 있는 점 정도가 다를 뿐이다。결국 이 읍지는 一八七一년의 보은읍지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식년에 파악된 호총(四、〇一三호)이 추가된 읍지임을 알 수 있다。

四) 忠北報恩郡邑誌(奎一〇七五七)

一八九九년경 보은군수 金炳卨이 만든 보은읍지。(鎭管)、坊里、道路、建置沿革、郡名、官職、山川、壇廟、公廨、堤堰、軍丁、時起田畓、田稅、大同、糶糴、社倉、物産、驛院、寺刹、古跡、城池、人物、孝子、烈女、進貢、俸廩、淸州鎭管所編伍軍 등의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시기적 특성과 무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報恩郡邑誌(상백 古 九一五·一三-B六三三)와 동일하다。보통 첫머리에 있는 읍지도가 이 읍지에서는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데、세련된 필치에도 불구하고 위 상백本 읍지도와 동일하다。즉 이 읍지는 報恩郡邑誌(상백 古 九一五·一三-B六三三)와 같은 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읍지는 과거의 읍지를 베껴 적었으면서도 갑오 개혁 이후의 변화상이 곳곳에서 반영되어 있다. 관직 항목에는 別監 이하 직책들이 폐지된 사실과 함께 鄕長 이하 새로운 하급관원 및 아전의 명칭과 인원 수가 표시되어 있고, 전세와 대동 항목에는 무명으로 납부하던 이들 세목이 폐지된 사실이 적혀 있다. 시기전답수(二、二六四결 五九부), 환곡의 종류 및 분급 수량, 각 면별 사창의 斂散米 액수, 驛院, 進貢, 俸廩, 淸州鎭管所編伍軍 등이 폐지된 사실 등은 모두 읍지 편찬 당시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읍지의 말미에는 이 읍지의 편찬자인 報恩兼靑山郡守 김병설의 이름과 보은군수의 도장이 찍혀 있다。 報恩郡旺來面林閑里致死女人權氏獄事査案(奎二一九〇四)에서 一八九九년 당시 김병설이 보은군수를 역임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一。扶餘邑誌

一) 扶餘誌(奎一五七〇五)

一九二九년 충남 부여군청에서 발행한 부여읍지。五권 二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자본이다。一책의 판권지에 따르면 一九二八년 三월에 인쇄、一九二九년 三월에 발행되었다。一책(권一~권二)과 二책(권三~권五) 본문의 첫머리 부분에는 警務局 圖書課에서 배부했다는 표시가 있다。

一책의 첫머리에는 이 읍지 편찬을 주관한 당시 부여군수 洪漢杓의 서문이 있고、그 뒤로 축척 一/一二〇、〇〇〇의 「忠淸南道扶餘郡略圖」가 있다。서문에서 홍한표는 부여 명칭의 역사와 연혁、읍지 편찬의 계기 등을 적고 있다。홍한표에 따르면 우리 역사에서 부여란 호칭을 쓴 곳은 모두 四곳이 있었다 한다。숙신 땅 동쪽에 해부루가 도읍했던 북부여、압록강 유역에 금와가 도읍했던 동부여、평안도 성천에 동명왕이 도읍했던 졸본부여、충청도 사비군에 백제 성왕이 도읍한 동부여가 그것이다。이 중 나머지 세 부여는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명칭이 없어져 버렸고、유독 사비의 부여만이 지역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한다。

一九一四년의 관제개혁에 따라 그 영역이 재조정된 일제시기의 부여군은 조선시대의 부여현에 홍산 전체、임천 전체、석성의 절반、노성과 공주의 일부분이 합쳐진 것이었다。이 읍지에는 부여현(권一)、홍산현(권二)、임천군(권三)、석성현(권四) 등 병합 이전의 四 군현의 읍지가 실려 있고、그 뒤에 一九二九년 당시의 부여읍지(권五)가 실려 있다。권四까지는 조선시대 읍지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고종대의

읍지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항목(官案 등)에서 관제개혁 직전인 一九一〇년대 초까지가 보완된 것이다。반면、권五는 체제를 달리하고 있으며、편찬 시점의 부여 읍세에 대한 설명이 주류를 이룬다。

(一) 元扶餘縣 (권 一)

전체 항목은 建置沿革、縣名、官職、山川、城址、道路、坊里、驛院、橋梁、堤堰、公廨、壇廟、倉庫、寺刹、古蹟、樓亭、陵墓、形勝、土産、風俗、人物(相臣、儒賢、文學、忠義、孝行、貞烈、文科、武科、蔭官、生進、官案)、旱田、水田、糶糴、田稅、大同、均稅、軍兵、俸廩、進貢、題詠(詩、歌、記、文、賦)으로 구성되어 있다。편자의 견해를 나타내는「按」、시기적 사정을 나타내는「今」등이 곳곳에 보인다。

건치연혁 항목에서는 주몽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南行하여 비류는 미추홀에、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자리를 잡는 과정、백제를 국호로 개국하게 된 과정과 그 영역、한산、웅진、부여로 도읍지를 옮긴 것、의자왕 때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것 등 백제의 건국과정과 이후의 略史가 실려 있다。편자는 위례성을 직산으로、미추홀을 인천으로 추정했다。

가호 총수는 三、四八三호、인구수는 一五、九〇九명으로 되어 있는데、기준연도가 없다。驛院 항목에는 白馬津에 있던 石橋(良舟津橋)가 무너진 후 官路가 窺岩津으로 변경된 사실이 실려 있다。公廨 항목에는 客舍、內衙 등 주요 관청건물들이 一八六〇、一八七〇년대에 집중적으로 개보수된 내역이 상세하다。

人物 항목은 相臣、儒賢、文學、忠義、孝行、貞烈、文科、武科、蔭官、生進、官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忠義 항목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官案은 一五二〇년(중종 一五)에 부임한 愼敦禮로부터 一九一〇년에 부임했다가 一九一二년에 퇴임한 李悳應까지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한전과 수전 항목에 기록된 시기 전결수는 다른 항목들에 비추어 볼 때 고종 때의 것으로 보이지만、분명치는 않다。糶糴 항목에는 호조에서 추가한 환곡이 一八六四년(고종 一) 때의 조치로 탕감된 사실과

함께、一八六六년(고종 三)에 추가된 별비미의 액수、대원군의 포군 설치에 따라 마련된 강화도의 砲糧米의 액수 등이 실려 있다。

무엇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題詠 항목이다。역대의 문장가들이 백제의 흥망과 부여의 절경을 노래한 詩、歌、記、文、賦로 구성되어 있다。詩와 歌에는 蘇世讓、金弘郁、黃俊良、李景奭、尹宣擧、洪可臣、李明漢、李昭漢、吳瑗、金昌翕、兪棨、金鎭商、趙觀彬、金奎五、權用直、洪春卿、李春英、金集、李好閔、申欽、李存吾、鄭夢周、閔思平、李喜之、尹鳳九、權韠、趙正緖、趙宅謙、尹載成、洪廸、僧處能、宋翼弼、趙緯韓、閔鼎重、柳得恭、李眞望、金尙珽、金尙憲、金搢、鄭光弼、李安訥、吳始壽、李師命、尹昕山 등 작품을 남긴 명사들과 지방관들의 이름이 보인다。그 뒤로 安曾生(石灘亭)、李珥(義烈祠)、柳成龍(義烈祠觀善堂)、黃一皓(義烈祠重修記)、金福鉉(扶風館重修記)、鄭夏彦(淸風亭) 등이 남긴 記가 이어진다。문장으로는 大唐平百濟國碑銘、劉仁願碑、鄭澔의 義烈祠立庭碑文、鄭彦忠의 道泉寺事蹟碑文、觀善堂上樑文、義烈祠楣文이 있다。말미에 백마강을 노래한 閔齊仁의 賦가 있다。

(二) 元鴻山縣 (권 二)

전체 항목은 陵墓 항목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元扶餘縣(권 一)과 동일하다。방리 항목에서는 전체 호수(三、八九三)、인구(一六、四三七)와 함께 면별로 編戶 수 및 남녀 인구수가 파악되어 있다。호수의 기준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다른 항목들과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읍지의 특성으로 미루어볼 때 一八七〇년대 초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橋梁 항목에는 一八七〇년(고종 七)에 신축되었던 萬德橋가 이듬해 개축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또 公廨 가운데 客舍、官舍、冊房、及唱房、內三門、使令房、外三門、作廳、將廳、鄕廳、官廳、公須廳 등 읍치의 주요건물들、그리고 壇廟 가운데 社稷壇、城隍壇、厲壇 등이 一八七一년(고종 八)에 집중적으로

신축 혹은 개보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公廨 가운데 관사와 외삼문의 편액은 대원군이 써서 내려주었다 한다。

官案 항목에는 역대 홍산현감의 명단만 수록되어 있는데、위 元扶餘縣(권 一)과 전체적인 체제가 통일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一九一四년 직전까지의 명단으로 보인다。官案 항목에는 전직 홍산현감을 기리는 비석들이 一八七一년(고종 八)에 관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전과 수전 항목에 기록된 시기 전결수도 一八七〇년대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치는 않다。糶糴 항목에는 호조에서 추가한 환곡이 一八六四년(고종 一) 때의 조치로 탕감된 사실과 함께 一八六六년(고종 三)에 추가된 別備米의 액수가 실려 있는데、이런 내용들은 위 元扶餘縣(권 一)의 糶糴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들이다。

역시 題詠 항목이 가장 상세하다。시문에서는 朴淳、李安訥、鄭弘溟、趙榮慶、徐有聲、李儒膺、鄭夔和、洪選容、趙鳳熙、李弼愚、李培秀、李好閔、申欽、沈宗直、尹舜擧의 이름이 보인다。말미에는 金龍根(客舍)、鄭夔和(東軒、門樓)、鄭顯裕(冊房遊翰堂記) 黃起龍(作廳、作廳上樑文)、朴東燮(作廳)、宋正熙(挹淸亭)、宋時烈(淸逸祠)、金汶宰(槐竹軒上樑文) 등의 記가 있는데、특히 대원군정권 때 개보수된 건물들에 대한 기록에서는 대원군의 역할과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三) 元林川郡 (권 三)

전체 항목과 내용이 수록된 형식은 元扶餘縣、元鴻山縣과 동일하지만、내용은 상대적으로 소략한 느낌을 준다。방리 항목에는 전체 호수(三、七三七)、인구총수(一七、四四九)가 파악되어 있으나、기준연도는 없다。牧場、關阨、烽燧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표시와 함께 驛院항목 안에 표시되어 있는데、元扶餘縣、元鴻山縣과 형식상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공해 항목에서는 金喬根에 의해 행랑이 개축된 사

실、壇廟 항목에서는 七山書院이 一八六八년(고종 五) 철폐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이 소략하기는 相臣、儒賢、文學、忠義、孝子、貞烈、文科、武科、蔭官、生進、官案으로 구성된 인물 항목도 마찬가지이다。官案은 아무런 표시없이 黃順敬으로부터 趙東舜까지 명단만이 나열되어 있다。

한전과 수전 항목에서는 원장부 액수와 함께 시기전결수(한전: 八二一결 二五부、수전: 一、九七〇결 五부 六속)가 기록되어 있다。한전、수전、전세、대동、균세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에는 기준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元扶餘縣、元鴻山縣 등과 일관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보면 고종대의 현황이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題詠 항목은 詩、記、文으로 구성되어 있다。詩에는 鄭時亨、南龍翼、李安訥、沈魯崇、沈斗永의 이름이 보인다。記는 五德寺實記、聖興山城實記、大鳥寺彌勒實記、客舍重修記(沈魯崇)、江山樓記(南秉哲)가 있고、文에는 高麗林州大普光禪寺碑文、二淸軒上樑文、江山樓上樑文(沈魯崇)、江山樓重修上樑文、踈齋李相國頤命碑文(趙觀命 記、李宜顯 書)이 있다。

(四) 元石城縣 (권 四)

항목 구성과 배열 순서、수록 내용의 형식 등은 앞선 사례들과 동일하다。방리항목에는 호수(一、七一二)와 인구수(八、八三七)는 丙子年 식년의 호적대장을 바탕으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元扶餘縣、元鴻山縣、元林川郡 등과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병자년은 一八七六년(고종 一三)일 가능성이 높다。역대 현감의 명단이 수록된 官案 항목에는 善政碑의 유무만이 표시되었을 뿐이다。한전과 수전、전세、대동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에는 기준연도의 표시가 없다。말미의 題詠 항목에는 崔淑生、李安訥、李濟臣、林濟遠의 이름이 보인다。

(五) 扶餘誌 (권 五) : 郡廢合以後

권五는 지방제도 개혁과 군현통폐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부여의 一九二八년 당시 읍세가 서술되어 있다。앞선 조선시대 읍지 형식과는 항목의 명칭이나 내용 구성이 전혀 다르다。전체 항목은 다음과 같다。沿革、位置境界廣袤、地勢及氣候、郡名、官職及其他職員、面里名方里距離及戶數人口、風俗、姓氏、(新)官公廨其他、寺刹 祠院、倉庫、名勝古蹟、樓亭館、陵墓、形勝、道路 橋梁(附車輛)、河川、水利組合、人物、民有課稅地、非課稅地、驛屯土、鑛區、酒類、各稅賦課額、官公署及其他團體歲入出一個年豫算、敎育、宗敎及社會、勸業(普通農事 畜業 蠶業 棉作 林業)、商工、市場、水産、警備、衛生、金融、各種會員(振興會靑年會 赤十字社 愛國婦人會 在鄕軍人會 苧布株式會社)、題詠(頌 序 記)、跋。沿革 항목에서는 一九一四년 군현통폐합 사실이、位置境界廣袤 항목에서는 그 결과 재조정된 부여의 경계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특히 四방위의 경계지점에 이르는 거리 표시에는 里와 함께 町이라는 단위가 사용되었다。地勢及氣候 항목에 따르면、부여는 사방이 산악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남부는 평야지대로 농사가 적합하다 한다。

관직 항목에 따르면、군수는 농회장、축산조합장、삼림조합장、고적보존회장、麵子조합장을 겸한다。이밖에 군 내 관직으로는 면장、소학교장、경찰서장、우편소장、지방법원출장소주임、금융조합장、도평의원、산업조합장 등이 있다。

面里名方里距離及戶數人口 항목에는 부여의 면적、총 호수(一九、〇六五)、총 인구수(一〇一、〇二五)가 있다。면적 대비 인구의 수가 적은 편이지만、장차 물산과 인구가 동시에 늘어나면 호서지방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담겨 있다。각 면별 호수와 인구수도 파악되어 있는데、일본인、朝鮮人、外國人의 숫자가 구별되어 있다。군 전체로 보면 일본인은 二三八호(남자 : 四八四명、여자 四四九명)、조선인은 一八、七八九호(남자 : 五〇、八九三명、여자 : 四九、〇七九명) 외국인은 三八호에 이른다 한다。

민심은 좋은 편이라 한다。古家名族이 구습에 젖어 있었으나 다행히 신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풍이 일

어나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는데、일제시기 군청의 입장이 충실하게 드러난다(風俗 항목)。

新官公廨及其他 항목에는 一九一五년에 신축된 군청 이하 각종 기관들의 명칭과 위치가 소개되어 있다。관청건물은 一九一四년 군현통폐합 이후 신축하거나 혹은 옛 건물을 고쳐서 써 왔는데、옛 관청건물들이 너무 낡아 개보수가 시급한 형편이었다 한다。다만 조선시대 건물 가운데 부여의 객사、홍산의 이층문루 및 외산면의 무량사 극락전 건물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어서 영구보존할 만하다 한다。寺刹 항목에서는 寺有財産의 현황이 세밀하게 파악되었다。

이 읍지가 일본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은 백제 고대문화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나타난다。名勝古蹟 항목에 따르면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의 고대 문화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 한다。백제의 도성에 대한 설명이 있고、그 뒤로 부여 및 그 인근의 백제유적이 소개되었다。

樓亭館 항목에서는 부소산 서쪽에 있었던 泗沘樓가 군수 金昌洙에 의해 건립된 사실、옛 부여의 객사 건물이 소학교 건물로 사용되었다가 一九二八년 考古品陳列館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능산리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있었던 사실은 陵墓 항목에 기록되어 있다。능산리 고분이 예전부터 왕릉일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다 하는데、一九一七년 발굴을 주도한 黑板關野良은 능의 내부구조나 유품이 飛鳥시대와 같다는 이유로 백제왕릉으로 단정지었다。능의 내부에는 채색벽화로 장식되어 있었는데、鮮麗射光의 주도로 내부관람 시설이 마련되었다。이밖에도 백제왕릉으로 추정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다 한다。

도로 항목에서는 육로로 三등도로의 경로가、수로로는 四二척의 선박이 이용하는 선착장들이 소개되었다。자동차 三대를 비롯 군내 차량은 모두 七七九량이 있었다 한다。河川 항목에는 금강의 유로、백마강 명칭의 연혁、금강의 범람 사례、금강의 지류 등과 함께 하천을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제안이 들어 있다。水利組合 항목에서는 조합의 설립 경위、각 조합 별 몽리전답의 수가 파악되어 있다。

인물 항목은 孝行、貞烈、文科、武科、蔭官、生進、官案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중 관안에는 一九一四년에 부임한 安琦善에서 一九二八년 당시의 군수인 홍한표까지만 수록되었다。

과세 대상 민간인 토지의 총 면적、전답 등 각종 지목의 당시 지가를 적은 民有課稅地、임야 사찰 하천 등 비과세지의 총면적을 적은 非課稅地、驛屯土를 포함한 국유지 현황이 지목별로 파악된 國有地 항목 등에서는 당시 부여의 토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일제시기 부여의 읍세와 관련되는 광구의 면적、주류의 생산량도 파악되어 있다。各稅賦課額은 조세 부과 대상과 부과액에 관한 내용이며、官公署及其他團體歲入出一個年豫算은 국비와 지방비 등 세입 세출 예산에 관한 내용으로、위 토지 현황과 함께 일제시기 부여의 읍세를 짐작하게 하는 것들이다。

홍한표는 특히 학교교육의 활성화에 자부심을 가졌던 듯하다。교육 항목에 따르면 향학열의 증가로 인해 입학 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군내의 민심이 학교의 증설과 교사의 증축을 열망하고 있었다 한다。각급 교육기관의 명칭、학급 수、학생 수 등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勸業 항목에는 군 내에서 경작되는 작물의 종류와 수량、임야의 면적、양잠 가호수、뽕나무밭의 면적、가축의 종류와 두수가、工産物 항목에서는 生絲를 비롯한 공산물의 종류와 수량이 파악되었다。읍내 시를 비롯한 군내 시장의 현황은 市場 항목에서、금융조합의 설립시기와 회원 수 등은 金融 항목에 각각 정리되었다。

振興會 靑年會 赤十字社 愛國婦人會 在鄕軍人會 苧布株式會社의 창립 경위와 회원 수 등은 各種會員 항목에 소개되었다。題詠 항목에는 薛因宣의 글、司馬先生案序、扶風校宮重修記、泗沘樓記(金昌洙)、大哉閣重修記(李宗鎬)、林川文廟重修記(李萬用)가 있다。말미에는 홍한표의 위촉을 받아 이 읍지 편찬을 실무적으로 주관했던 兪致亨의 발문이 있다。

二) 扶餘縣邑誌(奎一七三七六)

一八세기 후반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부여읍지。항목은 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山川、風俗、坊里、人戶、軍兵、城池、倉庫、壇廟、寺刹、公廨、橋梁、堤堰、均稅、糶糴、驛院、形勝、樓亭、題詠、古跡、鎭堡、陵、墓、物産、旱田、水田、田稅、大同、俸廩、冊板、人物로 구성되어 있다。『충청도읍지』(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六二ㅣ一八八)로 묶인 부여읍지(제 三〇책)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그것을 필사한 읍지로 보이는데、각 면의 머리에는 오탈자를 바로잡은 부분이 있다。

人戶、旱田、水田、田稅、大同 등의 항목에 아무런 기준 연도가 없어서 어느 시기의 사정이 반영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다만 호구의 숫자(三、四二八호)가 『여지도서』(三、八四二호)보다는 『호구총수』(三、四三六호)에 근접해 있어서 정조 때의 수치일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말미의 題詠 항목에는 李穀、李明漢、金昌翕 등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二。石城邑誌(奎一七三七七)

一七八八년(정조 一二)경 편찬된 석성읍지。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名、形勝、官職、鎭管、坊里、道路、山川、姓氏、陵寢、壇廟、風俗、公廨、堤堰、倉庫、物産、橋梁、驛院、牧場、關阨、烽燧、樓亭、冊版、寺刹、古跡、鎭堡、人物、旱田、水田、進貢、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軍兵으로 되어 있는데、체제상으로는 『여지도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陵寢、驛院、牧場、關阨、烽燧、冊版、鎭堡 등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도 항목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 읍지가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만들어진 관찬읍지임을 짐작하게 한다。英廟라는 표현(人物 항목)、정

조 때에만 쓰이던 尼城이라는 지명(鎭管 항목) 등은 이 읍지에 정조 때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준다。정조 때의 관찬읍지 편찬사업은 『해동여지통재』가 유일하다。결국 이 읍지에는 一七八八년(정조 一二) 규장각의 읍지 편찬 관문에 따라 석성현에서 만든 것이거나 혹 그것을 베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坊里 항목에는 각 里별로 편호 및 남녀 인구수가 파악되었는데、기준연도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一七八六년(정조 一〇) 식년의 호구수일 가능성이 높다。旱田과 水田 항목의 시기 전결수의 기준이 되는 乙巳年은 一七八五년(정조 九)이다。田稅 항목에서는 조운선이 猪浦를 출발해 서울 京江에 닿는 경로가 상세히 파악되었다。

三。新定牙州誌(奎一七三八四)

一八一九년(순조 一九)경에 李浩彬이 편찬하고 洪履度가 교정한 私撰 아산읍지。순조대 이후 사용되었던 魯城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倉庫 항목)、一五二三년(중종 一八) 이후 아산 공진창에서 충청도 四〇읍의 전세를 모아 조운한 지가 三〇〇년에 이른다는 표현(倉庫 항목) 등은 이 읍지의 편찬 시점을 짐작하게 해 준다。특히 이 읍지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시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호구와 전안의 기준년인 己卯年、戊寅年은 각각 一八一九년(순조 一九)、一八一八년(순조 一八)이며、이 읍지가 一八一九년(순조 一九)경에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 항목은 疆界、建置沿革、官員、鎭管、邑號、邑先生、俗尙、坊里、土姓、戶口、田案、租稅、免稅給復、廩俸、進供、倉庫、船隻、倉穀、軍案、軍任、吏案、賤案、鄕任、面任、里任、工匠、魚鹽店戶、橋梁、堤堰、川防、場市、山川、風土物産、館舍、學校、祠壇、驛院、寺刹、樓亭、忠臣、孝子、烈女、學行、人

物、文章、文科、武科、筮仕、司馬、謫居、塚墓、氏族事實、古今摠錄으로 되어 있다。아산의 관찬읍지는 一八세기만 하더라도 최소 두 차례 이상 만들어졌지만、이 읍지는 항목의 계통에 있어서 관찬읍지들과는 현저히 다르다。

편자는 여러 항목에서 옛 아산읍지(舊誌)와 대조해 가면서 그 변화상을 실었다。이른바 舊誌는 一七四二년(영조 一八)에 만들어졌다 하는데、편자는 관찬읍지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舊誌의 수정판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편자는 또 곳곳에서 「按」을 붙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官案은 舊誌에 수록된 명단에 당시의 存案을 첨가한 것이며、戶口는 면별 호구수、전체 호구수를 정리한 것이다。편자는 아산의 인구가 舊誌 단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원인을 漏籍者의 증가、읍세의 쇠락 등에서 찾고 있다。一九세기 들어 아산의 읍세가 줄어든 것은 田案、倉穀、工匠의 수치가 감소한 것에서도 확인된다。특히 倉穀은 舊誌 단계에 비해 一/一〇로 줄어들었다 한다(倉穀 항목)。

전답의 결당 세액과 각종 잡세는 租稅 항목에서、無土免稅田을 비롯한 각종 비과세지는 免稅給復에서 정리되었다。창고 항목에는 공진창 운영의 略史와 現況이 파악되었다。吏案、賤案、鄕任、面任、里任、工匠、魚鹽店戶 등이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된 것도 특이하다。

山川 항목에서는 산세、성곽 유무、관련 고사가 있고、나루、포구、하천、연못 등과 관련된 사실도 망라되어 있다。동북쪽이 높고 서남쪽이 낮은 아산의 전체 山勢와 다양한 토산물은 風土物産 항목에서 정리되었다。題詠 항목을 따로 두지 않고 시가와 기문을 관련 항목들에 배당한 것도 특이한 점이다。館舍 항목에는 客館에 대한 申欽、趙瑗、李安訥 등의 시가、寺刹 항목에는 鄭斗卿 등의 시가、樓亭 항목에는 金錫胄、南九萬 등의 記가 수록되어 있다。

鄕校와 서원의 연혁、고사 등에 관한 내용은 상세한 편이다。土亭 李之菡이 향교를 이전한 사실、향교에 소장된 서목、향교의 경제적 기반、향교에서 여씨 향약을 시행했던 사실、仁山書院에 五賢을 배향하

게 된 경위、서원의 경제적 기반、현감 尹弼殷이 인산서원을 철폐하려 했던 일、그것을 반대했던 유생의 글、顯忠祠와 司馬所의 연혁에 관한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이순신을 비롯해 기록할 만하다고 평가된 인물들은 忠臣、孝子、烈女、學行、人物、文章、文科、武科、筮仕、司馬、謫居、塚墓、氏族事實 항목에 소개되었다。아산 태생이 아니더라도 아산과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들도 포함되었다。말미의 古今摠錄에서는 이지함의 예언、巨商 成時望의 일생 등 野史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도 망라되어 있다。

一。新昌縣邑誌(奎一七三八五)

『여지도서』 편찬 명에 따라 一七五八년(영조 三四)에 만들어진 관찬 신창읍지。 內題는 乾隆二十三年戊寅月日新昌縣輿地勝覽으로 되어 있다。 영조대에는 관찬 전국지리지 편찬을 위해 一七五八년(영조 三四)과 一七六〇년(영조 三六)、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각 군현의 읍지를 모은 일이 있었다。 현재 전해지는 『여지도서』는 一七六〇년(영조 三六)에 만들어진 것을 묶은 것인데、 이 읍지는 홍문관에서 내려보낸 최초의 관문에 따라 一七五八년(영조 三四)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체 목차는 四界、建置沿革、官員、郡名、姓氏、山川、城郭、堰(新增)、土産、樓亭、學校、祠廟、驛院、橋梁、佛宇、古跡、客館、冢墓(新增)、人物、忠臣、孝子、義士、孝婦、孝女、烈女로 되어 있다。 읍지는 『동국여지승람』의 항목과 내용을 기본으로 한 것인데、堰、冢墓、義士 등 일부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고、土産、祠廟、人物 등 기존 항목의 내용도 보완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기록할만한 지역 인물들의 행적이 人物、孝子、義士、孝婦、孝女、烈女 등으로 나뉘어 상세하게 보완되었다。 군현지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旱田、水田、田稅、大同、軍兵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도 『여지도서』에 실린 一七六〇년(영조 三六)본과 다른 점이다。

二。燕岐邑誌(奎一七三八一)

연대미상의 연기읍지。열녀 항목 가운데 英宗朝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부터 정조대 이후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본문은 道路、建置沿革、郡名、形勝、城池、官職、姓氏、風俗、陵寢、壇廟、公廨、坊里、山川、堤堰、倉庫、物産、橋梁、驛院、牧場、關防、烽燧、樓亭、寺刹、古蹟、鎭堡、人物(孝子、烈女)、田賦、進貢、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軍額、冊板으로 구성되어 있다。田賦、進貢、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에는 기준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形勝、城池、陵寢、橋梁、牧場、關防、烽燧、鎭堡 등은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道路는 네 경계지점에 이르는 大路와 小路가 구별되어 있으며、방리 항목에는 각 리 별로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기재되어 있으나 호구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여지도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樓亭 항목 가운데 燕喜亭、合江亭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표시되었고、人物 항목 중 烈女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三。延豊郡邑誌(奎一〇七五三)

一七七五년(영조 五一)에 만들어진 관찬 연풍읍지。읍지도 一책을 포함해 二책으로 되어 있다。읍지도는 동쪽을 위로 하고 있는데、필치는 다르지만『여지도서』에 실린 읍지도와 내용상 유사하다。조선시대의 연풍현은 현재의 괴산군 연풍면、장연면、충주시 상모면에 해당한다。지도의 위쪽으로 백두대간을 이루는 鳥嶺과 그곳에 설치된 關門이 보인다。

같은 제목과 내용을 가진 동일한 읍지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想白 古 九一五·一三一Y四三)、內

題가 「癸巳十一月日延豊縣邑誌草」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읍지의 초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영조대의 전국 읍지 편찬사업은 『여지도서』로 일단 결실을 보았지만、완결된 것은 아니었다。영조는 一七七一년(영조 五一) 홍문관을 통해 전국 읍지 편찬을 명하는 관문을 내려보냈다。이 읍지는 그 관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전체 항목은 鎭管、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山川、風俗、坊里、戶口、田賦、徭役、軍額、城池、倉庫、糶糴、關防、烽燧、學校、壇廟、佛宇、宮室、樓亭、道路、橋梁、堤堰、島嶼、場市、驛院、牧場、形勝、土産、古蹟、進貢、俸廩、官蹟、科擧、人物、題詠、碑板으로 되어 있다。戶口와 田賦 항목에서는 신묘년(一七七一년、영조四七)의 통계가 사용되고 있으며、宮室 항목에서는 객사와 동헌 등 주요 건물들이 영조대 개보수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一七七五년(영조 五一)의 관문은 각 지역 읍지간에 좀 더 통일성을 기한 것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여지도서』의 보유편에는 경상도 하동、양산、삼가、의령、안의、산청、영천 등의 읍지가 실려 있다。이것들은 이 연풍현읍지와 항목의 구성과 배열 순서가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호구 항목의 연도 역시 공통적으로 신묘년(一七七一년、영조 四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여지도서』와 비교해 보면 旱田 水田 대신 田賦라는 항목 이름이 사용되었고 선생안이 첨부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띈다。

四。永同邑誌

一) 永同邑誌(奎一〇七五二)

一八九九년(광무 三)에 읍지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관찬 영동읍지。첫머리에 읍지도가 첨부되

었다。말미의 官案을 비롯한 인명록으로부터 이 읍지의 편찬 시점을 추측할 수 있다。그러나 읍지도와 인명록을 제외한다면 이 읍지는 『동국여지승람』을 수정한 숙종 때의 영동읍지를 거의 그대로 베껴 적은 것이다。『동국여지승람』을 개정하기 위해 처음 전국 각 군현 읍지를 모은 것은 숙종 때였다。一七〇〇년(숙종 二六) 경에는 이미 상당수의 군현읍지들이 수합되었으나、현재 그 내용이 자세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이 읍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숙종대의 관찬읍지가 어떤 체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읍지의 항목은 建置沿革、郡名、疆界、姓氏、形勝、土産、烽燧、城郭、樓亭、古跡、堤堰、館宇、學校、祠廟、書院、驛院、佛宇、風俗、塚墓、人物、名賢、忠臣、孝子、烈女、文科、武科、蔭仕、生進、官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하여 일부 항목과 내용을 추가한 형태이다。形勝、土産、樓亭、古跡、館宇、書院、佛宇、孝子 등 여러 항목에서 보이는 「新增」된 부분은 모두 숙종대에 보완된 내용들이며、곳곳에서 기록된 「今上」은 모두 숙종을 가리킨다。호구、전결、부세、군병 등 군현의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보이지 않는 점도 눈에 띈다。

二) 永同縣邑誌(奎一七三九六)

영조대에 편찬된 영동읍지。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名、官職、鎭管、坊里、道路、形勝、城池、山川、姓氏、風俗、壇廟、公廨、堤堰、倉庫、物産、橋梁、驛院、烽燧、樓亭、寺刹、古跡、人物(忠臣、孝子、烈女)、旱田、水田、進貢、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軍兵으로 구성되어 있다。旱田、水田、戶口 등의 통계수치를 비롯해 거의 모든 항목과 내용들이 『여지도서』의 영동읍지와 동일하다。일부 항목의 배열 순서가 다른 것、읍지도가 없는 점、인물 항목의 일부 인물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정도가 다른 점이다。이런 점들로 미루어보면 이 읍지는 『여지도서』 편찬과 관련된 영동읍지의 초본 혹은 그것을 베

껴 쓴 읍지일 가능성이 높다。

五。寧城邑誌 天安郡誌(經古 九一五・一三二-Y六三y)

一八五二년(철종 三)에 천안의 사족 李心純 등이 군수 韓瑰와 함께 편찬한 사찬 천안읍지。목판본이며、상하편으로 나뉘어 있다。첫머리에 읍지도와 서문、목록 등을 갖추고 있으며、목록 아래로 이 읍지를 간행하는 데 참여한 지역 사족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한여가 군수로 부임했을 때 천안에는 一八一三년(순조 一三)에 李魯謙이 편찬한 寧城郡誌만이 남아 있었다。한여의 서문에 따르면、마침 지역 사족들의 주도로 邑誌(상편)와 文獻錄(하편)을 결합한 새로운 영성읍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다。한여는 그들의 위촉을 받아 序例와 節目을 정하고 兪氏三代孝行錄의 발문을 쓰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

한여의 서문과 목록 뒤로 一八一三년에 쓰여진 이노겸의 寧城郡誌舊識、새 읍지 편찬을 주도한 이심순의 寧城誌說이 있다。이심순의 寧城誌說에 따르면、새로운 영성읍지를 읍지와 문헌록이라는 독특한 상하편 체제로 간행한 것은 풍토의 아름다움과 인물의 융성함이 표리 관계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한다。

상편의 본문은 建置沿革、邑摠(官員、姓氏、形勝、山川、風俗、土産、烽燧、樓亭、學校、驛院、佛宇)、祠廟、古蹟、公廨、官館、倉庫、堤堰、橋梁、坊里、戶口、田結、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軍摠、名宦、人物、六賢、兩賢、塚墓、忠臣、孝子、烈女、未蒙褒秩、原居姓氏、寓居姓氏、樓觀亭記、題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노겸의 구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여러 문헌 등을 통해 내용이 보충되었으며、「新增」

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곳곳에 있다.

형승 항목에는 천안이 삼국의 중심적인 위치이며 요충지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고려 태조가 술사의 말을 받아들여 천안에 읍치를 두게 되었다는 『高麗史』 諺傳의 기술이 인용되었다. 호구(원호 三、六〇〇호)와 인구(一二、〇〇〇구)의 기준 연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작되고 있는 토지 현황과 田稅、大同、均稅 등은 一八四〇년(헌종 六)、환곡의 현황은 一八四一년(헌종 七)의 통계이다.

상권의 후반부는 지역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으로 채워져 있다. 名宦 항목에서는 기억할 만한 지방관들의 명단과 공로 사항이, 인물、충신 등의 항목에서는 지역에서 배출된 역대 인물들의 인적사항과 행적이 있다. 지역 사족이 중시하던 인물들은 六賢(兪彦謙、李承璧、玄德升、徐挺然、李重明、徐漢柱)과 兩賢(仝信、李筴)로 특별히 구분되었으며, 효자나 열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포상받지 못한 사람들은 未蒙褒孝烈秩에 수록되어 있다.

姓氏(原居、寓居) 樓觀亭記、題詠 등의 항목은 모두 「新增」된 부분이다. 原居姓氏는 一〇세대 이상 천안에 거주해온 성씨를 뜻한다. 성씨 아래 官歷 여부를 병기했으며, 그 인물과 祖孫관계에 있는 것을 기호로써 구분했다. 예를 들면 흑색으로 채워진 장방형(■)은 다른 성씨이거나 혹은 같은 성씨라도 조손관계에 있지 않은 별개의 계열에 대한 기록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유력 사족 가문의 계열과 그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樓觀亭記에는 李穀의 懷古堂記、康好文의 南院樓記、李恒福의 水仙亭記、宋時烈의 華祝館記와 明節亭記 등이 있고, 상편 말미의 題詠 항목에는 천안을 노래한 시, 六賢과 兩賢의 덕을 예찬한 글이 실려 있다.

하편의 寧城文獻錄은 인물、효자、열녀 등의 傳記와 관련 贊으로 구성되었다. 첫머리에는 李彦燗가 쓴 文獻序와 문헌록 편찬의 연혁을 밝힌 편자의 「謹按」 부분, 충효열의 가치를 그림으로 풀이한 文獻圖, 李泰

魯의 文獻序가 있다.

文獻序와 謹按 등에 따르면, 一五七七년(선조 一〇) 군수 孫汝誠이 이런 유형의 천안 인물록을 최초로 만들었다 한다. 그 뒤 一六二七년(인조 五) 군수 鄭之經이 효자 열녀의 사적을 복원하고 그 행적을 발굴하여 八폭의 병풍에 기록했다. 一六九八년(숙종 二四)에는 군수 李喜朝가 문헌록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一七三四년(영조 一〇)에는 李潤身이 책자를 만들어 보급했다. 一七四三년(영조 一九)에는 군수 李彦燾가 다시 효자 열녀 등의 사적을 찾아 복원하고 그들의 행적을 책자로 정리하여 남겨 두었다 한다.

본문은 孝子傳으로부터 시작되는데, 三綱의 차례 가운데 효가 으뜸이기 때문이라 한다. 첫 부분은 孫汝誠이 쓴 孝子傳들이며, 徐忠弼傳은 鄭之經이 추가한 것이다. 徐忠弼傳 뒤로는 鄭之經의 文獻傳에 대한 尹拯의 後序가 있다. 忠臣孝子贈參議柳義臣傳에서 孝子良人周善宗傳까지의 충신, 효자, 열녀 등에 관한 전기들은 李喜朝가 추가한 것이다. 周善宗傳의 뒤로 영성문헌을 편찬하게 된 경위를 적은 李喜朝의 글이 있다. 또 兪後揚傳의 뒤에는 영성문헌록을 다시 보완한 이윤신의 글이 있다. 文獻補라는 제목 아래 玄尙後傳부터는 李彦燾가 보완한 내용들이다. 韓泰東이 쓴 書兪氏世傳孝行錄後 뒤로 李承璧의 尊周論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발문으로는 李東蘊, 李進永, 李復永, 李慶五 등의 글이 있다. 말미에 李喜朝와 관련된 고사가 추가되어 있다.

六。永春邑誌

一) 永春郡邑誌(奎一〇七四六)

一八九五년 이후에 만들어진 영춘읍지(二책)。一책은 읍지도이다。조선시대의 영춘현은 一九一四년 지

방제도 개혁 때 단양군에 병합되었다。영월(지도상의 우측 상단)에서 흘러들어와 읍치 주변을 지나 단양 쪽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는 남한강에 합류된다。산줄기와 물줄기의 묘사는 기본적으로 『여지도서』에 실린 읍지도와 다르지 않지만、서원과 암자의 폐지 사실 등 一九세기 후반의 상황이 반영되었다。二책은 鎭管、坊里、道路、建置沿革、郡名、形勝、城池、山川、姓氏、風俗、壇廟、公廨、倉庫、物産、橋梁、驛院、寺刹、古跡、人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특기할 만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소략한 편이다。

二) 永春邑誌(奎一〇七六三)

一八九九년에 편찬된 『(忠淸北道各郡)邑誌』에 실려 있는 영춘읍지。지도、읍지、읍사례로 구성되어 있는데、읍지도 뿐만 아니라 읍지의 항목과 배열、내용 모두 위 永春郡邑誌(奎一〇七四六)와 동일하다。다만 관직 항목이 더 있을 뿐인데、六품직인 현감 직제의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은 원본을 베껴 적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이 읍지의 의의는 結政、軍政、還政 등 三政의 내역을 적은 邑事例에 있다。

七。禮山縣邑誌(奎一七三九〇)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경에 편찬된 관찬 예산읍지。전체 항목은 鎭管、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山川、風俗、坊里、戶口、田賦 徭役、軍額、城池、倉庫、糶糴、關防、鎭堡、烽燧、學校、壇廟、塚墓、佛宇、宮室、樓亭、道路、橋梁、川防、島嶼、場市、魚鹽、驛院、牧場、形勝、古蹟、土産、進貢、俸廩、宦蹟、科擧、人物、題詠、碑板、集聖祠記로 구성되어 있다。내용이 없는데도 나열된 城池、關防、鎭堡、烽燧、島嶼、魚鹽 등의 항목은 이 읍지가 일정한 격식에 맞추어 제작된 관찬읍지임을 말해 준다。

항목의 구성과 편차가 一七七五년(영조 五一)에 편찬된 위 延豊郡邑誌(奎一〇七五三)와 유사하다。특히 호구 항목이 독립되어 있는 것、토지현황이 田賦라는 이름을 가진 것、선생안이 첨부되어 있는 것、말미에 碑板 항목이 있는 것 등은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읍지들의 공통점이다。그러나 읍지도가 없는 점、集聖祠記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말미에 붙어 있는 점、여러 제언이 교량 항목 안에서 서술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이 읍지가 一七七五년(영조 五一)본의 완결판이 아니라 그 초고이거나 초고를 베껴 적은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호구 항목에 기록된 총 호구수(二、八一六호)、田賦 항목에 기록된 한전 수전의 시기전결수에는 기준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편찬 시점의 통계로 보인다。도로 항목에는 관문으로부터 주변 군현에 이르는 大路와 小路가 구분되어 있다。宦蹟 항목에는 李泌이 一五五四(명종 九)에 부임해 온 사실로부터 一七六九년(영조 四五)에 安宗秀가 예산현감직을 떠나간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다。科擧、人物 등에서 보이는 「今上」이라는 표현은 영조대를 가리킨다。

八。沃川邑誌

一) 沃川邑誌(奎一〇七五九)

一八九九년(광무 三)경에 편찬된 관찬 옥천읍지。官案 항목에서 鄭道源이 一八九九년에 淸道군수로 옮겨간 사실까지 반영된 것、坊曲 항목의 호구수가 一八九九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등으로부터 편찬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첫머리에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다。현재의 옥천군은 조선시대의 옥천과 청산이 합쳐진 지역이며、조선

시대 옥천의 중심인 읍치는 현재의 옥천읍내 지역이다。전체적으로는 개화식 구도로 보이지만、산들이 맥으로 묘사되지 않아서인지 풍수적 명당 형국으로 그려진 보통의 읍지도들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군내를 휘감아 회인 방면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는 공주를 거쳐 흐르는 금강인데、그 주변으로 赤登津、化仁津 등의 나루가 있다。사각형 안에 표시된 것은 면의 이름들이다。영동、보은、회인、회덕、진산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표시되어 있으며、사찰、서원、누정이 보인다。

전체 항목은 鎭管、坊曲、道路、建置沿革、郡名、形勝、官職、山川、姓氏、風俗、土産、驛亭、堤堰、廨宇、樓亭、虛市、校院、寺刹、古跡、題詠、烽臺、橋梁、塚墓、名宦、官案、名賢、忠臣(功臣附)、孝子、烈女、人物、科第、生進、武科、蔭仕、戶摠、軍摠、吏校、官奴婢、結摠、還摠、賦稅、貢獻、俸廩 등으로 되어 있다。

坊曲 항목에서는 각 리별 編戶 수가 적혀 있다。道路 항목에서는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대로와 소로로 구분되었다。驛院의 위치、驛吏와 奴婢 수、馬匹의 수는 驛亭 항목에서、堤堰의 위치、사방의 길이、둘레、높이、깊이 등은 堤堰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校院 항목에서는 書院 影堂 祠宇 등의 연혁과 함께 院生과 保直의 수가 적혀 있다。군내 절경을 노래한 시들은 주로 樓亭 항목에 있으며 題詠 항목은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이 읍지의 특징은 인물 혹은 그와 관련된 사적이 자세하다는 점이다。冢墓 항목에서는 趙憲의 상세한 사적을 볼 수 있다。官案 항목에 수록된 역대 지방관 명단은 一三四三년(고려 충혜왕 四)에 부임한 許殷國에서 시작되고 있다。

성리학적 교화의 원칙에 부합되는 인물들은 名賢、忠臣(功臣附)、孝子、烈女、人物 항목에 망라되어 있다。대체로 인물들의 본관、호、간략한 행적 등이 소개되었다。과거에 급제했거나 음직으로 벼슬길에 나간 사람들은 生進、武科、蔭仕 등으로 나뉘어 수록되었다。

말미의 戶摠、軍摠、吏校、官奴婢、結摠、還摠、賦稅、貢獻、俸廩 등은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해당한다。戶摠(六、二二三호)은 기준 연도가 없지만、一八九九년의 통계 수치인 坊曲 항목의 호구수나 남녀인구수와 동일하다。그러나 結摠과 賦稅 등은 辛卯年 즉 一八九一년(고종 二八)의 수치들이 사용되었다。

이 읍지는 一八七一년에 만들어진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의 옥천군지와 동일한 읍지를 베껴 적고 일부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孝子 항목을 비롯해 곳곳에서 보이는 「今上」이라는 표현은 고종대를 의미한다。그런데 科第 항목에서 임준상에 대해서는 『當宁壬午』라는 표현이 쓰인 반면、이지수에 대해서는 「今上癸酉」라는 표현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科第 항목이 시대별로 과거 급제자를 수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當宁壬午」라는 표현은 一八二二년(순조 二二)을 뜻한다。이 사실은 이 읍지나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의 옥천군지가 모두 순조대의 읍지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二) 沃川邑誌(奎一〇七六四)

一八九五년(고종 三二)경에 편찬된 관찬 옥천읍지。첫머리에 읍지도가 실려 있는데、위 沃川邑誌(奎一〇七五九)의 지도와 대동소이하다。전반부는 읍지、후반부는 읍사례로 구성되어 있다。전반부의 항목은 鎭管、坊曲、道路、建置沿革、郡名、形勝、官職、山川、姓氏、風俗、驛亭、堤堰、廨宇、樓亭、虛市、校院、寺刹、古蹟、題詠、烽臺、橋梁、名賢、忠臣、孝子、烈女、人物、科第로 구성되어 있다。戶口 田結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들과 塚墓、名宦、生進、武科、蔭仕 항목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의 옥천군지와 동일하다。다만 坊曲 항목의 호구수가 一八九一년(고종 二八)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 읍지의 가치는 후반부의 읍사례에 있다。읍사례의 항목은 戶口、面里、田結、稅貢(田稅條、三手粮條、大同條、結錢條、各樣雜費條)、軍摠、私募屬、穀簿、進上、校院、軍器、烽燧、堤堰、徭役、寺刹、營

納、公下、詳定、官廳、官屯、官屬、工庫、郡司、貿易、紙筒、戶長掌、吏房掌、戶房掌、禮房掌、兵房掌、刑房掌、工房掌、內工房掌、承發掌、雇馬色掌、田稅色掌、大同色掌、禁衛色掌、御營色掌、軍器色掌、束伍色掌、都書員掌、官廳色掌、司倉色掌、大同倉色掌、常倉色、歲抄色掌、官用都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一八九四~一八九五년에 걸쳐 전국적인 읍지 편찬을 시도했고、이 읍지들을 바탕으로 一八九五~一九九六년에 걸쳐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에 착수했다。이 읍지의 읍사례는 지방 제도 개혁 직전에 옥천이 어떤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일부 항목 가운데 一八九五년의 사례까지 반영되어 있으나、읍의 재정적 관행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一八八五년(고종 二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곳곳에서 이 해에 정해진 절목과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一。溫陽邑誌

一）溫陽郡邑誌(奎一七三八三)

정조 때 편찬된 관찬 온양읍지。곳곳에 보이는 각 왕들의 묘호가 영조에서 그치고 있는 점、己酉年이기준연도인 총 호수(二、八一六호)가 一七八九년(정조 一三)의 조사결과인 『호구총수』의 호구수와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이 읍지에 반영된 시기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山川、溫泉、風俗、坊里、戶口、田賦(田稅、大同)、徭役、軍額、城池、公廨、倉庫、糶糴、學校、壇廟、靜退書院、名賢宰相墳墓、佛宇、樓亭、題詠、道路、橋梁、堤堰、場市、驛院、古蹟、土産、進貢、俸廩、人物로 되어 있다。坊里 항목이 뒤로 가 있는 점、한전 수전 대신 田賦라는 항목 이름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항목 구성과 배열 순서는 『여지도서』보다 一七七五년(영조 五一)에 만들어진 읍지와 유사하다。그러나 이 읍지에는 읍지도와 선생안이 들어 있지 않다。

정조는 一七八八년(정조 一二) 『해동여지통재』 편찬을 위해 전국 각 군현에 읍지를 편찬해 올리도록 명했다。그러나 규장각을 통해 하달된 관문에는 세부적인 편찬 지침이 들어 있지 않았다。현재 정조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읍지들에는 『여지도서』 계통에 속하는 것과 『여지도서』와는 이질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후자에 해당하는 이 읍지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에 만들어진 온양읍지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시기적 변화상을 반영시킨 것이다。

온천 항목에는 內正殿 外正殿 湯室 등의 시설물과 함께 현종과 영조의 온천 행차 관련 사실들이 정리

되었다。戶口 항목의 수치는 一七八九년(정조 一三)의 것인 반면、田賦 항목의 수치는 一七九三년(정조 一七)의 것이다。서원의 배향 인물들은 靜退書院에서、지역 출신 명사의 분묘는 名賢宰相墳墓에서 각각 소개되었다。道路 항목에서는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감영、병영、수영과의 거리에 관한 설명이 있다。人物 항목 가운데 鄭礦부터는「新增」했다는 표시가 선명한데、이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에 만들어진 읍지에 내용을 추가한 것을 의미한다。一九세기 관찬 온양읍지들은 거의 이 읍지를 그대로 베껴 적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들이다。

二) 溫陽郡邑誌(想白古九一五・一三一0ㅁ九)

고종 때(一八七一년 이후) 편찬된 온양읍지。첫머리에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다。온천으로 유명한 지역답게 지도에는 임금의 가마가 온양온천으로 향하는 길이 강조되어 있다。靜退書院이 一八七一년(고종八)에 폐지된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이 읍지의 편찬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山川、溫泉、風俗、坊里、戶口、田賦(田稅、大同)、徭役、軍額、城池、公廨、倉庫、糶糴、學校、壇廟、靜退書院、名賢宰相墳墓、佛宇、樓亭、題詠、道路、橋梁、堤堰、場市、驛院、古蹟、土産、進貢、俸廩、人物、鄕校、鄕任、溫泉 등으로 구성되었다。이 중 建置沿革에서 人物에 이르는 대부분의 항목은 위 溫陽郡邑誌(奎一七三八三)의 내용과 동일하다。戶口 항목의 己酉年은 一七八九년(정조 一三)、田賦 항목의 癸丑年은 一七九三년(정조 一七)을 말한다。

이 읍지가 위 溫陽郡邑誌(奎一七三八三)와 다른 점은 鄕校、鄕任、溫泉、行宮 등이 추가된 것에 있다。大成殿을 비롯한 향교 건물과 校生 수、大成殿 東西廡의 위패 배치도 등은 鄕校 항목에서、座首 이하 여러 향임층의 구성과 인원 현황은 鄕任 항목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溫泉 항목에는 온천 북쪽 靈槐臺의 관리자 현황이 있다。行宮 항목에는 一七五0년(영조 二六)에 왕이 온천에 거둥했을 때 충청 지역 지

방관들이 분담했던 역할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설명에 따르면 忠州牧使는 本道都差員으로 총괄 책임을 맡고、淸風府使가 溫陽站都差員、淸州牧使가 天安站都差員、洪州牧使가 稷山站都差員으로 각각 지역별 책임을 맡았으며、도내 지방관、判官、察訪 등이 各務差員으로 실무적인 역할을 분담했다 한다。 읍지의 끝에는 尹行恁의 글씨로 비석에 새겨진 正祖의 御製靈槐臺碑銘이 있다。

二。陰城郡邑誌(奎一〇七六二)

一八九六년 지방제도 개혁 이후에 편찬된 음성읍지。 표지는 陰城郡邑誌이나 내제는 陰城縣邑誌로 되어 있는데、군제가 채택된 후 이전 읍지를 그대로 필사하면서 표지와 내지에만 郡이라 표시한 것이다。 이 읍지는 모든 면에서 一九세기에 편찬된 『忠淸道邑誌』(국립도서관、한古朝六二-一八八)의 음성읍지와 동일하다。

전체 항목은 本邑四界、建置沿革、郡名、坊曲、姓氏、風俗、形勝、山川、土産、城郭、關防、烽臺、宮室、樓亭、學校、驛院、橋梁、堤堰、佛宇、祠廟、陵墓、古蹟、名宦、人物、題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의 구성 및 배열 순서는 『여지도서』보다는 『동국여지승람』에 가깝다。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관한 항목들도 이 읍지에서는 거의 빠져 있다。

곳곳에 보이는 「戊子年에 新增했다」는 표지는 이 읍지가 무자년에 『동국여지승람』을 수정한 읍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내용을 신중한 戊子年이 어느 해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런데 풍속 항목의 무자년 신증 부분은 『여지도서』에서 확인된다。 이는 위 무자년이 『여지도서』의 음성현읍지가 만들어진 一七五〇년(영조 三六)보다 앞선 해임을 의미한다。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위 무자년은 一七〇八년(숙종

三四)일 가능성이 높다。

인물 항목은 ① 人物、② 戊子新增人物、③ 新增人物로 구성되어 있다。① 人物은 『동국여지승람』의 내용、② 戊子新增人物는 무자년에 보완된 내용、③ 新增人物은 그 뒤 다시 보완된 내용을 가리킨다。결국 이 읍지에는 『동국여지승람』의 내용、一七〇八년(숙종 三四)에 신증된 내용、一九세기에 다시 보완된 내용 등이 혼재되어 있다。

三。定山邑誌(奎一七三七八)

영조대에 편찬된 관찬 정산읍지。人物 항목에 「當宁」로 표현된 것들이 모두 영조대를 가리킨다는 사실로부터 편찬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전체 항목은 四界、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山川、風俗、坊里、戶口、田賦、徭役、軍額、學校、壇墓、陵墓、佛宇、樓亭、道路、橋梁、堤堰、場市、驛院、古蹟、土産、進貢、俸廩、人物、題詠、倉庫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체제는 『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보다는 一七七一년(영조 五一)에 편찬된 관찬읍지들에 가깝다。이해에 만들어진 관찬읍지들은 항목 구성과 배열 순서 등에 있어서 『여지도서』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형식의 통일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다만 이 읍지는 읍지도와 선생안이 없고、창고 항목이 말미에 와 있다。정돈되지 못한 느낌을 주는 이런 요소들은 이 읍지가 一七七一년(영조 五一)본 정산읍지의 초고본일 가능성을 말해 준다。영인본 『여지도서』(국사편찬위원회)의 보유편에 수록된 정산읍지의 체제는 一七七一년(영조 五一) 읍지의 형식을 더욱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서 이 읍지와 비교된다。

戶口、田賦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에는 기준 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이런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영조 四〇년대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四。堤川邑誌

一) 堤川郡邑誌(奎一〇七五〇)

一九세기 말에 편찬된 관찬 제천읍지。목록과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다。표지와 내제가 모두 「郡」으로 되어 있지만 관직 항목은 현감으로 되어 있다。이것은 이 읍지가 지방제도 개혁(一八九五~一八九六년)이 단행된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대부분의 내용이 이전의 읍지로부터 옮겨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전체 항목은 地圖、建置沿革、官員、郡名、疆界、道里、山川、坊里、堤堰、形勝、風俗、土産、館宇(題詠)、鄕校、書院、鄕賢祠、驛院、壇廟、樓亭、佛宇、橋梁、虛市、古跡、姓氏、人物、孝烈、塚墓、戶摠、軍摠、還摠、結摠、賦稅(各宮房免稅)로 되어 있다。

이 읍지의 항목을 포괄하고 있는 제천읍지가 一九세기에 편찬된 『忠淸道邑誌』(국립도서관、한古朝六二-一八八)안에 실려 있는데、이 道誌 안의 제천읍지는 순조대에 편찬된 것을 헌종 때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결국 堤川郡邑誌(奎一〇七五〇)의 원형은 이미 순조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 읍지의 원본과 『忠淸道邑誌』의 제천읍지 사이에 시간적인 낙차가 있음은 과거급제자를 수록한 인물 항목에 잘 나타난다。이 읍지는 一八一四년(순조 一四)의 급제자까지 수록된 반면、위 도지 속의 제천읍지에는 一八三八년(헌종 四) 급제자까지 수록되어 있다。孝子 항목에 소개된 朴瀅의 행적 가운데 一八二九년(순조 二九)이 「當宁己丑」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결국 이 읍지는 순조대의

원형이 대부분 유지된 원본에 일부 一九세기 후반의 변화가 반영되거나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산천 항목에 따르면 제천의 祖山인 치악산으로부터 뻗어내린 산자락이 남쪽으로 이어져 鉗巖山이 되고 鉗巖山에서 다시 서쪽으로 뻗어내려 白雲山이 된다 하는데、첫머리의 읍지도에도 鉗巖山이 邑置를 품어 안고 있는 형국이 잘 묘사되어 있다。金駙孫의 癡軒記는 館宇 항목에서、申槩에서 李憲國에 이르는 명사들의 시는 館宇(題詠) 항목에서、權近의 鄕校記는 향교 항목에서 각각 소개되었다。

향교에 딸려 있던 校生、校奴婢、保奴 등이 폐지된 사실、南塘書院이 一八六八년(고종 五)에 철폐된 사실、鄕賢祠가 폐지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모두 위 一九세기 도지의 내용과 달라진 것들이다。인물、누정 등의 내용도 도지에 비해 상세하다。향현사에는 배향된 인물들의 사적이 충실하게 보완되어 있으며、樓亭 항목에는 嘆湖亭新建記가 있다。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에는 기준 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이 중 戶摠과 結摠은 대체로 편찬시점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軍摠의 내용은 道誌에서 옮겨 적은 것이며、還摠、賦稅(均稅、田稅、結錢) 등은 道誌와는 다르지만 실태를 반영한 것은 아니어서 모두 「今廢」로 표시되어 있다。還摠、賦稅(均稅、田稅、結錢)、賦稅(各宮房免稅) 등의 수치는 一八七一년에 편찬된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 제 四책의 제천읍지와 동일하다。

二) (堤川)邑誌(奎一〇七六三)

一八九九년에 편찬된 『(忠淸北道各郡)邑誌』에 실려 있는 제천읍지。目錄은 堤川縣誌、內題는 堤川縣誌로 되어 있으며、첫머리에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다。본문의 전반부의 읍지 부분과 후반부의 읍사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전반부의 항목은 建置沿革、官職、郡名、疆界、道里、山川、坊里、堤堰、形勝、風俗、土産、館宇(題詠)、鄕校、書院、鄕賢祠、驛院、壇廟、樓亭、佛宇、橋梁、虛市、古跡、姓氏、人物、孝

烈、戶摠、軍摠、還摠、結摠、賦稅、官需、廩俸、將校、人吏、官奴婢、均稅、貢獻、四長官、五鎭屬、鄕所、知印、使令、冢墓로 구성되어 있다。목록에는 孝烈과 戶塚사이에 塚墓가 있고 使令 뒤로 邑先生案이 올라 있다。그러나 본문에는 선생안이 없고 使令 뒤로 塚墓가 수록되어 있다。

建置沿革에서 賦稅까지는 위 堤川郡邑誌(奎一〇七五〇)와 거의 동일하지만、이 읍지가 좀더 상세한 편이며、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에도 차이가 있다。읍선생안을 제외한 모든 항목과 그 배열 순서는 一八七一년에 편찬된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 제 四책의 제천읍지와 동일하다。그러나 道誌안의 제천읍지는 읍사례를 제외한 내용이 매우 소략한 데 비해、이 읍지는 같은 항목이라도 훨씬 상세하다。

一九세기 『忠淸道邑誌』(한古朝六二-一八八)에 있던 題詠 항목의 일부 시(李承召에서 金澄까지)는 위 堤川郡邑誌(奎一〇七五〇)에서 제외되었는데、이 읍지에서 다시 수록되었다。인물 항목은 李晦傑이 一八三八년(헌종 四)에 과거에 급제한 사실까지 기록되었다。효자 항목의 朴瀅에 관한 사실 가운데 一八二九년(순조 二九)이 「當宁己丑」으로 표시된 이유는 위 堤川郡邑誌(奎一〇七五〇)의 경우와 같다。戶摠에서 使令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지표 가운데 戶摠(二、八七二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수치는 위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 수록본의 읍사례 수치와 동일한 것이어서 읍지 편찬 시점의 사정과는 무관하다。전반부 말미에 붙어 있는 塚墓 항목에는 尹調元、李大遂、朴守儉、姜天民、姜瑜、閔機 등의 행적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편찬 시점과 가까운 시기의 사회경제적 사정은 읍지 후반부의 읍사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후반부의 전체 항목은 面里、公廨、囹圄、山川、嶺隘、堤堰、川洑、驛郵、物産、任役、戶摠、軍摠、結摠、穀摠、儲置米、倉庫、官廳、工庫、縣司、氷庫、雇馬廳、補役廳、鄕校、書院、社稷、城隍壇、祈雨祭、進貢(藥材)、巡營納雜物、內需司站船、刷馬價、邑先生賻儀、畜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五。鎭川邑誌

一) 鎭川郡邑誌(奎一〇七四八)

一八九九년경에 편찬된 관찬 진천읍지。순조 때의 진천읍지인 『常山志』를 부분적으로 베껴 적은 것이다。첫머리에 읍지도와 범례가 있는데 모두 『상산지』와 동일하다。말미에 鎭川郡守署理陰城郡守 徐彰輔의 직인이 있다。이 읍지의 원본인 『상산지』는 一九세기의 道誌인 『忠淸道邑誌』(국립도서관、한古朝六二-一八八、제 一六책)에 실려 있다。『상산지』가 상하권 체제임에 비해 이 읍지는 단권으로 되어 있다。미완성 상태의 읍지인 점을 감안하면、一八九九년 전국적으로 읍지를 편찬했을 때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범례에 따르면 과거의 읍지들이 소략해서 『평양지』의 예에 따라 증보했다 한다。범례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인물(忠臣、孝子、烈女) 선정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전체 항목은 疆域、分野、沿革、郡名、城池、坊里、風俗、形勝、山川、樓亭、壇祠、校院、古蹟、公署、倉儲、官職、軍額、驛院、橋梁、堤堰、土産、土田(附賦稅)、進貢、俸廩、徭役、寺刹、烽燧、道路、場市、戶口、姓氏、陵墓로 되어 있다。

원본을 그대로 베껴 적은 것이어서 대부분의 시기적인 특징들은 편찬 당시의 사정과 무관하다。校院 항목 중에 「當宁乙酉」라는 표현은 一八二五년(순조 二五)을 뜻한다。進貢、俸廩、徭役、戶口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도 『상산지』와 동일하다。다만 土田(附賦稅) 항목 가운데 시기전답 수치만이 『상산지』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이 수치가 편찬 시점의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二) 鎭川邑誌(奎一七三九三)

一七七五년(영조 五一)경에 편찬된 관찬 진천읍지。전체 항목은 鎭管、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山川、風俗、坊里、戶口、田賦、軍額、城池、倉庫、烽燧、學校、壇廟、陵墓、佛寺、樓亭、道路、橋梁、堤堰、場市、驛院、古跡、土産、進貢、俸廩、徭役、科擧、人物、題詠으로 구성되어 있다。항목의 구성과 배열 순서는 『여지도서』보다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에 편찬된 읍지들에 가깝다。그러나 읍지도가 없는 것、徭役 항목이 뒤로 가 있는 점、科擧 항목이 있고 先生案이 없는 것 등을 보면、이 읍지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본의 초고이거나 혹은 초고를 베껴 적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山川、人物 항목 등에 보이는 「新增」했다는 표현과 그 내용들은 『여지도서』에서도 확인되며、이 읍지를 편찬할 때 新增한 것은 아니다。

戶口、田賦、軍額、進貢、俸廩、徭役 등 사회 경제적 지표들에는 기준 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이 중 戶口(五、四六九호、남:: 一三、三〇五、여:: 一六、三六七)、田賦(시기전:: 一、八九一결 二三부、시기답:: 一、五三一결 六九부 一속)、軍額(四、二一九명)의 내역과 수치가 『여지도서』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一七七五년(영조 五一)경에 편찬된 다른 읍지의 경우로 미루어볼 때 대체로 영조 四〇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수치들은 순조 때 편찬된 『常山志』에도 그대로 적혀 있다。

六。青山邑誌

一) 青山郡邑誌(奎一〇七五六)

一八九九년경에 만들어진 청산읍지。첫머리에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다。전체 항목은 坊里、道路、建置

沿革、郡名、形勝、官職、山川、壇廟、公廨、堤堰、倉庫、橋梁、寺刹、田畓、鞾鞿、俸廩으로 되어 있다。항목의 구성과 배열 순서는 『여지도서』 유형에 가깝다。

방리 항목에 기록된 호수(二、三〇二)와 구수(남: 四、〇四三、여: 三、〇六〇)의 기준연도는 丁酉年이다。一九세기 道誌들에 의하면 『여지도서』 이후 청산현의 인구수에 관한 자료로 一八二八년(순조 二八)、一八七〇년(고종 七)의 것이 남아 있었는데도 이 읍지에 그 수치들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위 정유년이 一八七〇년대 이후임을 짐작하게 한다。이런 추정에 근거한다면 위 정유년은 一八九七년(광무 一)이 되며、이것으로부터 이 읍지의 편찬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관직 항목에는 郡制가 채택된 이후 아전과 이속의 구성이 바뀐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郡名、形勝 등에서 보이는 「新增」 부분은 『여지도서』 단계부터 확인되는 것으로、이 읍지가 편찬되던 시기에 보완된 것은 아니다。田畓의 結總、鞾鞿의 社還米、俸廩의 年俸 수치 등은 편찬 시점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二) 靑山邑誌(想白古九一五・一三一C四二一 s)

갑오개혁 직후에 작성된 청산읍지。첫머리에 읍지도가 붙어 있다。전체 항목은 坊里、道路、建置沿革、郡名、形勝、官職、山川、壇廟、公廨、堤堰、橋梁、寺刹、古跡、旱田、水田、鞾鞿、俸廩으로 구성되어 있다。

坊里 항목의 호구수(二、五〇四호)는 庚午年의 장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一八七一년에 편찬된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에도 동일한 수치와 기준연도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경오년은 一八七〇년(고종 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갑오개혁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항목의 구성과 배열 방식은 『여지도서』 유형에 가깝다。관직 항목에는 縣監으로 되어 있으며、그 아래 아전 및 이속의 구성도 모두 갑오개혁 이전의 것들이다。그러나 水川의

시기전결수、시기전결수의 합、조적의 현황、봉름 항목 등에는 편찬 시점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年俸의 액수가 기록된 俸廩 항목의 수치(三、五〇〇兩)가 위 靑山郡邑誌(奎一〇七五六)와 같은 것을 보면 두 읍지의 편찬 시점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七。淸安邑誌

一) 淸安郡邑誌(奎一〇七五四)

一八九九년(광무 三)경에 편찬된 관찬 청안읍지。읍지도는 별책으로 되어 있다。一九세기 청안읍지들과 비교해 보면 戶摠의 기준연도인 戊戌年은 一八九八년(광무 二)으로 추정되며、이 사실로부터 읍지의 편찬 시점을 알 수 있다。

목록상 전체 항목은 四界、建置沿革、郡名、官員、鎭管、坊曲、姓氏、風俗、山川、題詠、人物、文科、武科、蔭官、生進、忠臣、孝子、烈女、土産、學校、祠廟、館庫、祠宇、院齋、驛院、堤堰、佛宇、古跡、倉穀、結摠、戶摠、軍摠으로 되어 있는데、본문에서는 倉穀이 穀摠으로、結摠이 田結로 쓰여 있다。

一八·一九세기 관찬 청안읍지들은 모두 坊曲을 防曲으로 쓴 오류를 공유하고 있는데、이 읍지에 이르러 비로소 바로잡혔다。일부 항목에서는 시대에 따른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갑오개혁 이후 郡制가 채택되면서 직제가 군수로 바뀐 것(官員)、錦城大君貞愍公廟가 폐지된 것(祠宇)、대원군 때 서원이 폐지된 것(院齋) 등이 그것이다。倉穀、結摠、軍摠 등에는 기준 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二) 淸安縣邑誌(古四七九〇-二一)

一八七一년(고종 八)경에 편찬된 관찬 청안읍지。호구와 전결의 기준연도(庚午年、一八七〇년)로부터 편찬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첫머리에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목록에 적혀 있는 전체 항목은 四界、建置沿革、郡名、官員、鎭管、防曲、姓氏、風俗、山川、土産、學校、驛院、堤堰、佛宇、祠廟、館宇、題詠、塚墓、古跡、人物(文科、武科、蔭官、生員、進士、孝子、忠臣、烈女)、院齋로 되어 있으나、실제 내용은 院齋 뒤로 倉穀、田結、人戶、軍摠이 더 있다。

院齋 항목에는 대원군 정권 때 서원이 폐지된 사실이 반영되었으며、인물 항목에서 「新增」된 마지막 부분에는 一八五二년(철종 三)에 문과에 급제한 吳尙鉉이 있다。一八七一년(고종 八)에 편찬된 『湖西邑誌』 제 九책에는 모든 면에서 이 읍지와 동일한 청안읍지가 실려 있다。이 읍지의 효자 항목 등에서 약간의 정보량이 증가되어 있는 것 정도가 다른 점이다。

三) 淸安縣邑誌(想白古九一五·一三-C四二一a)

영조대에 편찬된 청안읍지。표지가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첫머리에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다。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名、道路、官職、防曲、姓氏、風俗、山川、土産、學校、驛院、堤堰、佛宇、祠廟、題詠、塚墓、古蹟、人物、文科、武科、蔭官、生員、進士、孝子、忠臣、烈女、祠宇、倉穀、田結、人戶、軍摠으로 되어 있다。항목의 구성 및 배열 순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人物、武科、蔭官、進士、孝子、烈女 등 인물 관련 항목들 곳곳에서 보이는 新增된 부분들은 이 읍지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항목을 가진 이전 읍지를 보완한 것임을 말해 준다。특히 人物과 武科 항목에서 戊申亂과 관련한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新增」된 것은 이 읍지가 영조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른 판본들과의 차이는 문과 항목에서 더욱 분명하다。문과 항목의 말미에 수록된 인물은 이중계이며 그 아래로는「新增」된 사항이 없다。一九세기 道誌인『충청도읍지』에는 이 읍지와 유사한 항목을 가진 청안읍지가 수록되어 있다。이 道誌의 청안현 문과항목에는 이중계에 이어 延東憲이 수록되었고 그 뒤로「新增」표시와 함께 辛蓍根이 기록되었다。『문과방목』에 따르면 연동헌과 신시근이 문과에 급제한 해는 각각 一七七五년(영조 五一)과 一八〇五년(순조 五)이다。결국 위 道誌의 청안읍지는 연동헌까지가 수록된 원본에 신시근을 추가한 것이며、이 읍지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旱田、水田、人戶、軍摠 등에는 기준 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坊曲 항목은 防曲으로 쓰여져 있는데、앞에서 본 청안읍지(古四七九〇-二一)와 一九세기 道誌 속의 청안읍지는 모두 이런 오류를 공유하는 같은 계통의 읍지들이다。

一。淸陽邑誌（一叢古九一五・一三二一CC四二二）

一九〇六년에 李在信이 편찬한 청양읍지。序文과 凡例를 갖춘 목판본이며、內題는 公淸右道淸陽邑誌이다。이재신의 서문에 따르면 옛 청양읍지는 상고시대의 유적에 대해서는 약간 서술되어 있으나 중고시대 이하로는 전혀 기록된 바가 없었다 한다。이재신은 세도가 날로 무너져가고 전적이 없어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옛 읍지를 증보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여 이 읍지를 편찬하게 되었다 한다。

본문의 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山川、風俗 坊里、戶口、田賦、徭役、軍額、城池、倉庫、關防、鎭堡、烽燧、壇廟、陵墓、佛宇、宮室、樓亭、道路、橋梁、堤堰、島嶼、學校、場市、魚鹽、驛院、牧場、形勝、古跡、名勝、土産、進貢、俸廩(月俸)、官蹟、封君、登文科、登武科、中司馬、蔭職、人物、儒賢、忠臣、孝行、孝婦、孝女、烈行、友睦、出義、碑銘、跋文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항목 구성과 배치 순서는『여지도서』보다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경에 편찬된 읍지들과 같다。본문에 서술된 戶口、田賦、徭役、軍額 등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들은 편찬 당시의 것이 아니라 원본을 그대로 베껴 적은 것들이다。이 읍지의 원본에는 대체로 一九세기 중후반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자는 옛 읍지의 항목과 편차、내용을 그대로 베껴 적고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에서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서술했다。편자는 官職 항목에 청양이 一八九四년 郡制 채택 이후 四등군으로 편성된 사실을 적었다。倉庫 항목에서는 一九세기의 還穀 현황을 邑還米와 驛還米로 나누어 적고 그것이 읍지 편찬 당시에

폐지된 사실을 아울러 기록했다。편자는 一九세기 청양현의 급료 내역을 俸廩 항목에 적은 다음、一八九六년(건양 一)에 제정된 月俸新定章程을 통해 군제 이후의 급료 내역을 소개했다。편자는 또 대원군이 시행한 戶布制의 내용을 新定戶布라는 이름으로 다루었다。宦蹟 항목은 李敎承이 一九〇三년(광무 七)에 부임해 온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다。

특히 편자는 유교적 덕목과 가치들이 날로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성리학적 교화와 관련되는 학교 항목과 人物에서 出義에 이르는 인재 관련 항목 등이 가장 상세한 것에서 편자의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다。편자는 범례에서도 주로 인물관련 편찬 원칙을 강조했다。충신 효자 열녀 등에 대해서는 포증 여부나 가문의 고하를 막론하고 연대순으로 기재했다는 것、행적이 탁월하다 해도 자손이 원치 않을 경우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學校 항목에는 文廟의 위패 현황、大祭祝文、社稷壇祝文、城隍壇祝文、成永愚의 鄕校題文(一八一四년)、趙章熙의 奉還聖像事實記、聖殿重修記(一八五一년)、校宮重修事實記(一八七四년)、崔益鉉의 聖殿重修記(一九〇四년)、釋奠時需用燭補錢、雙淸樓題詠、碧菡亭題詠 등을 실었다。登文科에서 시작되어 碑銘에 이르는 읍지의 후반부는 편자가 이 읍지를 만들면서 가장 치중했던 부분이며、내용 또한 매우 상세하다。말미에는 尹貞求가 쓴 跋文(一九〇六년)이 있다。

二。淸州郡邑誌(奎一〇七四七)

갑오개혁 이후에 편찬된 청주읍지。郡制가 채택된 이후에 만들어 졌지만、수록 내용은 그 이전의 것들이다。전체 목차는 建置沿革、四界道路、鎭管、官員、風俗、形勝、坊里、戶口、山川、壇廟、堤堰、倉

庫、場市、島嶼、物産、佛宇、道路、城池、胎室、校院、驛院、樓亭、旱田、水田、旌門、碑碣、人物、軍額、進貢、還穀營摠、田稅、大同、俸廩、塚墓로 되어 있다。

戶口、倉庫、旱田、水田、還穀營摠、田稅、大同、俸廩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은 一八七一년에 편찬된 『호서읍지』와 동일하다。호구에는 기준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한전 수전의 원장부 기준년도인 己亥年은 一八三九년(헌종 五)、시기전결수의 기준연도인 己丑年은 一八八九년(고종 二六)으로 추정된다。一八七一년에 서원이 철폐된 사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三。清風邑誌

一) 淸風郡邑誌(奎一〇七四四)

一八九九년(광무 三)경에 편찬된 관찬 청풍읍지。말미에 읍지도가 들어 있다。전체 목차는 建置沿革、山川、坊里、戶口、軍布、糶糴、賦稅(附徭役)、公廨、倉庫、場市、城堞、烽燧、置郵、壇所、學校(附書院齋塾)、樓觀、寺刹、道路(附津渡)、物産、姓氏、孝烈、墳墓、名勝으로 되어 있다。題詠과 邑事例 항목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항목 구성과 배열 순서 및 수록 내용이 一八七一년(고종 八)에 편찬된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의 청풍읍지와 동일하다。그러나 一八七一년 이후의 시대 변화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戶口 수(二、〇七九호)는 기준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편찬 시점과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조적 항목에는 一八九六년에 乙未義兵이 청풍부의 社還米를 탈취한 사실이 실려 있는데、관청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어서 「匪徒에게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다。一八七一년(고종 八)의 서원 철폐 사실이 기록된 것

도 위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의 청풍읍지와는 다르다。

二) 淸風郡邑誌(想白古九一五·一三一C四二一p)

一八七一년(고종 八) 경에 편찬된 관찬 청풍읍지。표지가 떨어져나간 상태이며、첫머리에 읍지도가 붙어 있다。전체 항목은 建置沿革、官職、山川、坊里、風俗、戶口、軍布、糶糴、賦稅(附徭役)、公廨、倉庫、場市、城堞、烽燧、置郵、社稷壇、學校、樓觀、寺刹、道路、物産、姓氏、(人物) 孝烈、墳墓、名勝、題詠으로 되어 있다。읍사례가 없는 점、조적 항목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른 점 등을 제외한다면 위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의 청풍읍지와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호서읍지』본에 수록되어 있는 一八七一년경의 부세 현황과 같은 해의 서원 철폐 사실 등이 이 읍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다를 뿐이다。조적 항목에는 一八六七년(고종 四)경의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이런 점들로 미루어보면 이 읍지는 『湖西邑誌』에 수록된 청풍읍지의 초본、혹은 그것을 베껴 적은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三) 淸風府邑誌(奎一〇七六三)

一八九九년에 편찬된 『(忠淸北道各郡)邑誌』에 실려 있는 청풍읍지。內題는 淸風府邑誌로 되어 있으며、첫머리에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다。전체 항목은 建置沿革、官職、山川、坊里、風俗、戶口、軍布、糶糴、賦稅(附徭役)、公廨、倉庫、場市、城堞、烽燧、置郵、社壇、學校、樓觀、寺刹、道路、物産、姓氏、孝烈、墳墓、名勝、淸風邑事例로 구성되어 있다。建置沿革에서 名勝 항목까지는 거의 모든 면에서 一八七一년(고종 八)에 편찬된 『湖西邑誌』(奎一二一七六)의 청풍읍지와 동일하다。一八七一년경의 부세 현황과 서원 철폐 사실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조적 항목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정도가 다를 뿐이다。

읍사례의 호구수(二、六三六호)는 읍지 부분의 호구 항목에 기록된 수치와 같다。그러나 읍사례에서는

虛分戶(三七六호)와 실호(二、二六〇호)의 수치도 파악되어 있는데、이 수치 역시 『호서읍지』의 읍사례와 같다。『호서읍지』 읍사례에 적혀 있는 시기전결수는 이 읍지에 들어 있지 않다。이런 점들로 미루어보면 이 읍지는 『호서읍지』에 실린 청풍읍지(一八七一년경) 보다 조금 앞서 만들어진 것을 원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읍사례는 戶口、田結、세입세출에 관한 세부 내역、定價式、上下秩、作末秩、造果式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읍사례는 대부분 원본에서 베껴 적은 것이지만、일부 항목의 細註에는 편찬 시점의 사정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다。一八八四년(고종 二一)부터 통인지가의 지급방식이 개선되었던 것(上下秩)、매년 四四냥씩에 달하던 水山場稅 가운데 절반인 二二냥을 一八九五년(고종 三二)에 색리에게 출급하도록 한 사실、그것마저 편찬시점에는 폐지되었던 사실 등을 볼 수 있다。

四) 淸風府邑誌(奎一七三九五)

정조대 말에 편찬된 청풍읍지。先生案에 李宗燮이 一七九七년(정조 二一)에 부임한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편찬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名、坊里、道路、形勝、官職(先生案)、山川、姓氏、風俗、壇廟、公廨、倉庫、物産、驛院、樓亭、烽燧、題詠、寺刹、人物、旱田、水田、進貢、田稅、大同、均稅、徭役、侔廩、軍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항목의 구성과 편차는 『여지도서』 유형에 가깝다。그러나 조선후기 관찬읍지 가운데 先生案、徭役 등의 항목이 설정되는 것은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읍지들에서부터였다。이 읍지는 『여지도서』에 실린 청풍읍지의 항목에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읍지의 일부 항목이 추가된 형태이다。

호구수(二、五七八)에는 기준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호구총수』의 청풍부 호구수(二、五六八)와 가까운 것으로 보아 유사한 시기의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선생안은 항목 구분없이 관직 항목 아래 기재

되어 있다。題詠 항목은 이 읍지에서 가장 상세한 부분으로、『여지도서』에 비해서도 자세한 편이다。

四。忠州郡邑誌(奎一〇七五八)

一八九九년(광무 三)경에 편찬된 관찬 충주읍지。一八七〇년에 편찬된 趙秉老의 읍지를 이때 다시 베껴 적고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 읍지이다。첫머리에는 읍지도가 첨부되어 있고、그 뒤로 조병로가 一八七〇년에 쓴 서문이 붙어 있다。서문에 따르면 조병로는 옛 읍지(舊誌)를 그대로 베껴 적되 폐지된 것은 주를 달아 표시하고 새로운 것은 조목에 따라 내용을 첨가해 넣는 방식으로 읍지를 만들었다 한다。

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名、官職、坊里、人戶、道路、橋梁、形勝、城池、山川、姓氏、風俗、陵寢、壇廟、公廨、堤堰、倉庫、鞾鞾、土産、人物、鎭堡、古跡、校院、寺刹、烽燧、關阨、牧場、驛院、軍額、結摠、樓臺題詠、築城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곳곳에서 新增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一八七〇년에 조병로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이 읍지에서 추가된 것은 아니다。

郡制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官職 항목에 牧使로 표시된 것은 원본을 그대로 베껴 적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표들에서는 편찬 시기의 사정이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호구(一七、六三九호)의 기준연도인 戊戌年은 一八九八년(광무 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結摠은 기준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시기전결수라기보다는 원장부의 수치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乙未義兵 관련 기사들도 곳곳에 보인다。乙未義兵이 충주성을 함락시키면서 守門廳과 사창을 불살랐으며(城池、倉庫 항목)、환곡을 탈취했다(鞾鞾 항목) 한다。을미의병이 匪徒로 표현된 것은 이 읍지가 관찬읍지이기 때문이다。鞾鞾 항목에 기록된 당대의 환곡 액수는 읍지 편찬 직전의 수치로 보인다。이밖에 公

廨、校院、烽燧、驛院 등의 항목에서도 一八七〇년 이후의 사정들이 반영되어 있다。말미에는 趙秉老의 築城記가 있다。

五。海美邑誌(奎一七三八八)

영조대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관찬 해미읍지。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山川、風俗、坊里、戶口、田賦、徭役、軍額、城池、關防、鎭堡、烽燧、學校、壇廟、陵墓、佛宇、樓亭、道路、堤堰、島嶼、場市、魚鹽、驛院、牧場、形勝、古蹟、土産、進貢、俸廩으로 되어 있다。戶口、田賦、徭役 등의 항목 이름과 항목이 배열된 순서 등을 보면『여지도서』보다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읍지들에 가깝다。다만 이 읍지에는 읍지도와 선생안、그리고 창고 항목이 들어 있지 않다。一九세기 道誌인『충청도읍지』에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읍지들의 특성이 좀 더 충실하게 반영된 해미읍지가 수록되어 있다。호구(二、六五九호)는 무자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으나 어느 해를 말하는지는 분명치 않다。田賦、徭役、軍額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에는 기준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六。鴻山邑誌(奎一七三九一)

영조대 이후에 편찬된 홍산읍지。一七六三년(영조 三九)에 처음 설치된 濟民倉이 기록되어 있는 것(창고 항목)을 보면 읍지의 상한선을 짐작할 수 있다。전체 항목은 道路、建置沿革、郡名、形勝、城池、官

職、坊里(附戶口)、山川、姓氏、風俗、壇廟、公廨、堤堰、倉庫、物産、橋梁、驛院、寺刹、古蹟、人物、旱田、水田、進貢、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軍兵、冊板으로 되어 있다。항목의 구성과 배열 순서는 『여지도서』에 가깝다。체제상의 차이는 읍지도가 없고 坊里(附戶口) 등 일부 항목의 배열 순서가 다른 것 정도이다。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여지도서』적인 읍지가 一九세기 道誌인 『忠淸道邑誌』에 수록되어 있어서 비교된다。

호구수(四、三八四)가 『호구총수』에 기록된 수치(四、三九三)와 거의 유사한 점을 보면 이 읍지에 정조대의 사정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旱田、水田、進貢、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軍兵 등 각종 사회경제적인 지표들에도 기준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七。洪州邑誌(奎一七三八六)

一七四四년(영조 二〇) 이후에 편찬된 홍주읍지。말미에 있는 尹鳳九의 글이 쓰여진 시점으로부터 읍지 편찬의 상한선을 짐작할 수 있다。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號、鎭管、邑坐、海島、寺刹、烽臺、城池、山川、壇廟、文廟、公廨、戶口、田畓、倉庫、俸廩、題詠으로 되어 있는데、일반적인 관찬읍지들과는 달리 郡號、邑坐、海島 등의 항목이 보인다。戶口、田畓、倉庫、俸廩 등에는 기준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말미에는 洪錫輔의 四達亭(一七一七년)、李廷濟의 南館記、宋時烈의 魯恩書院成先生遺墟碑文、尹鳳九의 兪拓基篆碑後面 등이 수록되어 있다。

八。黃澗邑誌

一) 黃澗郡邑誌(奎一〇七四九)

一八九九년(광무 三)경에 편찬된 황간읍지。표지는 군으로 되어 있으나、내제와 관직 항목에는 현으로 되어 있는데、갑오개혁 이전의 읍지를 그 이후에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첫머리에 읍지도가 붙어 있다。

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邑基、方域、邑號、官員、姓氏、山川、風俗、坊里、戶口、田賦、徭役、還餉、形勝、土産、進貢、俸廩、關防、烽燧、軍額、廨舍、倉庫、壇廟、學校、樓亭、驛院、佛宇、道路、橋梁、堤堰、場市、古蹟、名宦、人物、題詠으로 되어 있다。항목의 구성과 배열 순서는『여지도서』보다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읍지와 같은 계통에 속하지만、邑基、方域 등의 이채로운 항목 이름들도 보인다。

이 읍지의 원본은 一八二三년(순조 二三)에 만들어진 洪錫謨의 黃澗縣邑誌이다。첫머리에 읍지도와 함께 홍석모의 서문이 실려 있다。서문에 따르면 홍석모의 황간현읍지는 一七九三년(정조 一七)에 만들어진 鄭殷祥의 읍지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었다 한다。建置沿革 등에 보이는「謹按」이라는 표시 역시 원본에서 온 것이다。결국 이 읍지에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一七九三년(정조 一七)、一八二三년(순조 二三)、갑오개혁 이후라는 여러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호구(一、〇五七호)수와 作統 수(二一一統二)、시기전결수(전:五一〇결 八부 二속、답:四五六결 一八부 二속) 등은 어느 시기의 현황인지 분명치 않지만、갑오개혁 이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徭役、大同의 壬午年과 還餉의 癸未年은 각각 一八二二년(순조 二二)과 一八二三년(순조 二三)으로、원본인 洪錫謨의 黃澗縣邑誌에서 옮겨 실은 것이다。인물 항목에 보이는「今上」이라는 표현 역시 순조대를 가리키며、홍석모의 읍지를 그대로 베껴 적은 결과이다。俸廩의 기준년인 戊子年은 一七七五년

읍지에서 사용되었을 一七六八년(영조 四四)의 통계 수치로 보인다。학교 항목에는 一八七一년(고종 八)에 寒泉書院、松溪書院 등이 폐지되었던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二) 黃澗縣邑誌(想白古 九一五・一三-H九九二e)

一七九三년(정조 一七)경에 편찬된 황간읍지。표지가 없어진 상태이며、첫머리에 읍지도가 붙어 있다。人物(烈女)항목에 표시된 「今上」은 정조대를 가리키는데、이것으로부터 편찬 시점을 짐작할 수 있다。전체 항목은 建置沿革、郡名、鎭管、官職、姓氏、山川、風俗、坊里、戶口、田賦、徭役、軍額、倉庫、關防、鎭堡、烽燧、壇廟、佛宇、樓亭、道路、橋梁、堤堰、場市、驛院、形勝、古蹟、土産、進貢、俸廩、人物、題詠으로 되어 있다。항목 구성 및 배열 순서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읍지들과 같은 계통에 속한다。대부분의 내용은 一八二三년(순조 二三)에 만들어진 洪錫謨의 黃澗縣邑誌、혹은 갑오개혁 이후에 그것을 거의 그대로 베껴 적은 위 黃澗郡邑誌(奎一〇七四九)와 유사하지만、이 읍지의 내용이 훨씬 소략한 편이다。

위 黃澗郡邑誌(奎一〇七四九)에 따르면、洪錫謨가 黃澗縣邑誌를 만들 때 一七九三년(정조 一七)에 만들어진 鄭殷祥의 황간읍지를 바탕으로 했다 한다。이 읍지는 鄭殷祥의 황간읍지 내지는 그 초고이거나 혹은 그것을 베껴 적은 것이다。호구 수(一、九〇〇)와 면의 수(六개)는 『호구총수』의 수치(一、九八一호、六면)와 유사하다。시기전결수에는 기준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一七九三년(정조 一七)과 가까운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영조대의 사정이 반영된 부분들도 보인다。徭役 항목의 田稅와 大同、俸廩 항목 등에 기록된 戊子年은 一七六八년(영조 四四)을 가리키는데、이 읍지가 一七七五년(영조 五一)의 읍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驛院 항목 등에 표시된 「舊輿地」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의 읍지를

가리킨다。학교 항목에서 寒泉書院이 사액된 一七二六년(영조 二)이 「今上」으로 표현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九。懷德邑誌

一) 懷德邑誌(奎一七三七五)

정조 때 편찬된 관찬 회덕읍지。인물 항목에서 英廟라고 표시된 것、호구 수(二、四九〇호)가 『호구총수』의 수치(二、四九一호)와 거의 같은 것 등으로부터 편찬 시점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항목은 鎭管、建置沿革、郡名、官職、公廨、倉庫、壇廟、學校、城池、山川、道路、坊里、戶口、姓氏、風俗、堤堰、烽燧、驛院、牧場、鎭堡、關阨、橋梁、場市、物産、進貢、旱田、水田、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軍兵、形勝、古蹟、樓亭、人物、題詠、冊板、寺刹로 되어 있다。城池、牧場 등 일부에서 수록 내용 없이 항목만 나열된 것으로 보아 관찬읍지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항목 배열 순서가 일반적인 조선후기 관찬읍지들과는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정돈되어 있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것을 보면 정조 때 편찬된 관찬읍지의 초고본으로 생각된다。

旱田과 水田의 시기전결수의 기준연도는 庚子年으로 기록되었는데、一七八〇년(정조 四)을 가리킨다。또 糶糴、田稅、大同、均稅 등 중요한 사회경제적 수치들은 모두 乙巳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一七八五년(정조 九)을 가리킨다。전체적으로는 소략한 편이지만、人物과 題詠 항목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二) 懷德邑誌(奎一〇七六〇)

영조대에 편찬된 회덕읍지。朴彭年이 이조판서에 증직된 一七五八년(영조 三四)이「今上戊寅」으로 표시된 것으로부터 편찬 시점을 짐작할 수 있다。첫머리에 읍지도가 붙어 있다。전체 항목은『동국여지승람』을 옮겨 적은 전반부와、「新增」이라는 표시 아래 새로운 항목과 내용이 보충된 후반부로 구별된다。

전반부는 四界、建置沿革、郡名、姓氏、山川、土産、烽燧、樓亭、學校、驛院、佛宇、祠廟、古迹、題詠으로 되어 있으며、후반부는 縣名、面名、堤堰、祠廟、塚墓、樓亭、名宦、人物、寓居、忠臣、孝子、烈女、孝女로 되어 있다。縣名、面名 등 정형화되지 않은 항목 이름들이 나타나는 것、호구、전결、전세、대동、환곡、군병 등 군현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등도 같은 시기에 편찬된 전형적인 관찬읍지들과는 다른 양상이다。전체적으로 내용이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국가적 시각보다는 지역 사족들의 시각이 깊이 투영되어 있는 읍지이다。

一〇。懷仁郡邑誌(奎一〇七五一)

一八九九년(광무 三)경에 편찬된 회인읍지。宦蹟 항목에 李夏黃이 一八九九년 무주군수로 옮겨간 사실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부터 편찬 시점을 짐작할 수 있다。첫머리에 채색지도가 실려 있다。표지가 郡으로 된 데 비해 내용에서 縣으로 되어 있는 것은、郡制 채택 이후 그 이전의 읍지를 그대로 베껴 적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읍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편찬 시점보다는 그 원본이 작성되었던 시점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 항목은 鎭管、建置沿革、郡名、官職、姓氏、山川、風俗、坊里、戶口、田賦、徭役、軍額、城池、倉

庫、關防、鎭堡、烽燧、壇廟、陵墓、佛宇、宮室、樓亭、道路、橋梁、堤堰、島嶼、場市、魚鹽、驛院、牧場、形勝、古蹟、土産、進貢、俸廩、宦蹟、科擧、人物、題詠、碑板으로 구성되어 있다。항목의 구성과 배열 순서는 『여지도서』보다는 一七七五년(영조 五一) 읍지 계통에 가깝다。

一八七一년(고종 八)에 편찬된 『호서읍지』에는 호구와 전결 수치를 제외하고는 이 읍지와 동일한 회인읍지가 실려 있는데、그것에 따르면 이 읍지 말미의 題詠은 洪景海가 一七五七년(영조 三三)에 쓴 것이라 한다。

배 우 성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凡例

一。이 책은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忠淸道의 邑誌 중에서 『結城邑誌(奎一七三八七)』 외 四종의 책을 四·六배판 크기로 영인한 것이다。

二。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읍지의 각 항목별로 목차를 작성하여 앞부분에 수록하였다。

三。邑誌에 실려 있는 지도들은 사진 촬영 후 단색 분해하여 판형에 맞게 축소하였다。원본의 규격은 지도의 하단에 표시하였다。

四。표지의 書名은 규장각 소장의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集字하였다。

五。편집 및 목차 작성은 奎章閣 特別硏究員 吳尙學이 담당하였다。